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관용” 인식수준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현미경

2012년 8월

제주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관용” 인식수준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현 미 경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年 8月

현미경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年 8月

A Study on the perception level of tolerance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 city in Jeju

Hyun-Mi Kyu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na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II. 문화예술도시와 관용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
1. 문화예술도시의 정의	5
2. 문화예술도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8
3. 관용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2
III. 설문조사분석의 설계	24
1. 조사분석의 개요 및 의의	24
2. 조사방법과 설문의 구성	28
3. 분석의 틀과 표본의 구성	36
IV. 문화예술분야 관용에 대한 분석	39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2.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42
3. 조사 대상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46
4. 관용성에 대한 차이검증	49
V. 결론 및 정책제언	71
1. 결론	71
2. 정책제언	74

<표 목 차>

<표 1> 창조도시에 근거한 문화예술도시의 합의	6
<표 2> 문화예술도시의 발전요인	10
<표 3> 각 영역별 “관용”의 관점	17
<표 4> ‘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2
<표 5> 설문문의 구성 변수	29
<표 6> 연구의 가설	30
<표 7>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설문	31
<표 8>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설문(2)	31
<표 9>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설문	33
<표 10> 설문문의 표본 (단위 : 명,)	37
<표 11> 모집된 표본 유형별 대상자 수 (단위: 명, %)	39
<표 12> KMO와 Bartlett의 검정	42
<표 13> 요인분석 및 요인의 신뢰도 분석	43
<표 14> 사례자들의 문화활동 여부	46
<표 15> 문화활동시 동반참여자	46
<표 16> 문화활동 참여횟수	47
<표 17>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활동	47
<표 18>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48
<표 19> 문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	48
<표 20> 생활만족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49
<표 21> 성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51
<표 22> 연령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53
<표 23> 학력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56
<표 24> 문화활동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58
<표 25> 예술활동 분야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60

<표 26> 지역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64
<표 27>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65
<표 28> 문화활동과 생활만족감에 따른 차이검증	66

<그림 목 차>

<그림 1> 제주지역발전 관용의 역할모델	23
<그림 2> 연구의 흐름 및 분석의 틀	36

국 문 초 록

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로써,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이다. 또한 ‘관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은 장소와 기술과 인재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요소이다.

문화예술도시는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시민공간(civic spaces)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을 통해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관용”을 지역의 가치로 삼고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그러므로 관용’의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설문함으로써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의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근거로 삼고자한다. 관용의 도시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이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편익을 강조함은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에 “관용”이 가지는 공공선을 사회가치에 비중을 두어 제주를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나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도 더불어 높아질 것이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두 가지 이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관용”의 개념을 도출하고 설문지의 맥락을 정하는 것은 물론 설문지 구성에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정책제언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지역인 제주지역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성, 지역, 연령 등 변수에 따른 문화예술의 관용 차이를 분석하고, 관용에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15세 이상의 제주지역주민이며,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다. 표본은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제주도 344부, 서귀포시 98부, 총 44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성, 연령, 학력수준, 문화활동여부, 거주지역,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관용성의 수준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연령별, 학력수준, 문화활동여부,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관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높여나간다면 생활 만족도 상승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증가된 관용성은 외부지역의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써 인정받게 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성을 인정받는 도시로써 인식 될 때 제주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 지역주민의 관용의 정도를 확인하고 관용성 확장을 위한 제안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해 도시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제주는 새로운 발상의 원천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적 활동에 매력을 부가하여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황과 이를 통한 일정 수준의 분석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관용성이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연결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각 대상자들과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대상 변수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해석해 나간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이 인식을 확인하여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문화, 문화예술도시, 관용, 다양성, 지역발전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문화적 독특함을 배경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진다. 지역의 독특함은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며 특별함을 나타내고 인식의 확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좋은 예가 한국의 한류열풍이라 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2012.3.8)를 통해 기업의 82%가 한류확산으로 한국과 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며 문화(86.7%), 관광(85.7%), 유통(70.5%) 등 기업매출 상승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문화가 가지는 매력은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뚫어주는 가교 역할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데 있다(한세역, 2011). 박신의(2008;45)는 세계화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지역에 대입해 본다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확장시켜 나갈 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도시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를 할 수 있다. 문화는 예술적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지역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를 예술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도시의 창조성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에 플로리다가 있다. 플로리다(Richard Florida, 2008)는 창조성에 대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며 창조성과 경제성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인간의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이 있다. 이종수의(2012;27-29)는 기술의 발달이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시·공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였다. IT산업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듯이, 일의 방식, 삶의 방식, 시간의 개념, 가족과 공동체 구조 등 도시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변화는 현대인을

바쁜 삶에 매몰시키며 창의적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없이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과 답답하고 지옥 같은 도시를 벗어나 직원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제주로 이전하게 되었다”¹⁾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옥 이전 배경에 초점이 모아진다.

창의적 사고는 사고의 유연성에서 비롯된다. 서로의 다른 문화가 존중되고 받아들여질 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 사고는 존중되고 지역의 문화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적 환경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연이 주는 환경적 요건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도시로의 성장은 창조적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며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받아들여져 지역의 발전을 유도해나갈 것이다.

제주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전제로 하는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하다. ‘관용’을 정의해보면,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것,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의 차이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필요로 한다. 관용은 다름의 차이를 수용하여 삶의 여유와 자유를 제공한다. 인간은 무한한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력을 통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의 창조성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적 요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철호(2011)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 공존에 있어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문화예술도시는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시민공간(civic spaces)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용의 도시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에 “관용”이 가지는 공공선을 사회가치에 비중을 두어 제주를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나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도 더불어 높아질 것이다.

다양함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성(sexual),

1) 김수중(2009), 다음의 도전적인 실험, 시대의 창

인종, 지역, 사상, 민족, 관습, 가치관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름’이 아닌 ‘다양함’을 인정하는 근거를 “관용”이라 파악하였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관용”을 지역의 가치로 삼고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용’의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설문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용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제주지역주민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의 관용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플로리다(2008)는 ‘관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게이지수와 보헤미안지수를 통해 설명하였다. 관용성의 지표로 게이지수를 선택한 이유에 게이는 우리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게이공동체를 환영하는 장소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문화예술도시 구성에 있어 관용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게이 지수’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로 제시된다. 그러나 게이와 수를 비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념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 인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노출되기를 꺼려하거나 감추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 그렇다고 예술인이나 외국인 수만 가지고 관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술인의 수를 확인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경숙·조화성(2010)이 제시한 것처럼, 외국인수의 증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농촌층각들이 이주여성과 결혼하여 지역으로 유입되거나, 노동인력의 감소로 인력확보차원에 의해 증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관용’과 상관없이 자본의 이동, 즉, 필요에 의해 수용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용의 지표를 설정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확

2) 헤럴드경제, (2011.12.16), “이 땅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16095607455&p=ned>

인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관용”의 개념을 도출하고 설문지의 맥락을 정하는 것은 물론 설문지 구성에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정책제언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지역인 제주지역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성, 지역, 연령 등 변수에 따른 문화예술의 관용 차이를 분석하고, 관용에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시간적 범위로 2012년 시점이며, 둘째, 공간적 범위는 제주지역에 한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로는 문화예술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관용’의 개념 범위 내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Ⅱ. 문화예술도시와 관용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문화예술도시의 정의

문화예술도시는 창조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문화예술도시를 창조도시라고 하는 논지에 신광철(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도시의 개념을 통해 문화예술도시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관련이론을 검토하였다. 김석태·서준교(2002)는 창조도시가 창조계급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해 내고 삶을 풍요롭게 하여 인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플로리다(2008)는 창조도시를 경제발전의 3가지요소 즉,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창의적 역량이 경제활동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창조계급³⁾이 원하는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하였다. 랜드리(2008)는 예술과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안하여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라고 하였다. 또한 사사키 마사유키(2008)는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 즉, 시민의 활발한 창조활동을 통해 첨단 예술과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키우는 도시,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지역사회의 근저에서 해결하는 힘이 충만한 도시라고 제시하였다.

3) 창조계급의 핵심집단은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연기자, 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평론가, 여론주도자 등이 있다.

<표 1> 창조도시에 근거한 문화예술도시의 함의

연구자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
김석태·서준교 (2002)	- 창조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담당
플로리다(2008)	- 경제발전의 3가지 요소인 Technology(기술), Talent(인재), Tolerance(관용)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창의적 역량이 경제활동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창조계급이 원하는 환경을 갖춘 도시
랜드리(2008)	- 예술과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안하여 자유롭게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
사사키 마사유키 (2008)	-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

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이 가득한 도시,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누구든지 체류하고 싶어 하는 도시이다. 또한, ‘관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이며,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civic spaces)이다. 문화적 시각은 인간에게 예술적 삶을 살게 하여 인간적 연대감을 이어줌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교류를 확장시키고 도시경제의 새로운 고용과 부를 창출한다. 한세억(2011)은 문화가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중추적인 것으로 상호이해와 공감을 원천으로 인간적 연대감을 이어주는 시간과 공간의 힘을 지닌다고 하였다. 정철현 외(2011)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도시에 분출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용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은 도시 경제의 새로운 고용과 부를 창출하는데 좋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가 가지는 지역의 특별함을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신의(2009)에 의하면 예술은 사람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발견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변화를 유발하는 실천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문화예술은 다양한 변화를 유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촉진한다. 그 영향으로 지역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두어 자유롭게 행동하는 조직과 시민의 집합체인 도시를 통해 세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창조성의 원인이 되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역의 관용성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도시의 개념을 예술분야에 한함으로써 ‘창조도시’ 대신 ‘문화예술도시’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사사키 마사유키(2010)가 말한 ‘창조도시’의 특징을 문화예술도시가 갖는 특징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예술의 에너지가 넘쳐나며 시민이 충분히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 둘째,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산업으로 살린 창조산업군의 발전이 도시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 고용과 부를 만들어낼 것, 세 번째, 시민의 자치의식이 높아 커뮤니티 단위의 작은 공공권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다양한 창조의 장을 형성할 것, 넷째, 예술·인권·발전·환경·통치 등 다양한 방면의 삶 속에서 뛰어난 예술을 감상하고 경애하여 예술의 창조성을 통해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용적인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을 인정하는 분위기속에서 자유로운 창의성과 창조활동이 이루어질 때 지역은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도시는 ‘관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써,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가득하고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며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civic space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문화예술도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문화예술도시 관련 이론 검토

문화예술도시를 창조도시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문화예술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으로 신동호(2011)의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순복(2009)의 “도시의 창의성과 창조도시 육성정책의 성공전략 요인에 관한 연구”, 김인현(2011)의 “창조도시 요코하마시와 가나자와시의 비교”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의 발전에 문화예술도시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신동호(2011)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덤보(DUMBO)지구⁴⁾, 뱀(BAM)지구⁵⁾,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⁶⁾지구를 사례로 도시재생정책을 분석하며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행위주체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신동호(2011)는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에 창의적 인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4) DUMBO는 “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맨하탄과 강을 건너는 부르클린교와 맨하탄교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덤보지역은 공장이 많고 지상 30cm위로 거대한 교량이 있고, 그 위로 많은 차량이 통행으로 음침하고 소음이 심해 일반인들이 접근을 회피하던 곳이다. 1970년대 탈산업화 이후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및 예술활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그 원인에는 맨하탄의 지가가 상승하고 주택 및 사무실 임대료가 상승하자 젊은 예술가들이 싸고 넓은 주거 및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곳을 찾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80년대 뉴욕의 유명 유대인 부동산 회사에서 공장건물들을 헐값에 구입하여 저렴한 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이 덤보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인구의 유입과 활발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인촌으로 변화된 덤보지역에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등의 고급 전문직업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신동호, 2011).
 - 5) 브루클린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브루클린 음악 아카데미(Brooklyn Academy of Music, BAM)는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 극단이다. 뱀은 일반적 극단과 달리 전문 예술인이나 예술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을 관객으로 동원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브루클린은 중심가를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저가의 공연공간, 연습공간 등을 확충하고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급식당, 카페, 소매상, 주차 등을 유치하여 24시간 역동적인 근린지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뱀사업지구에는 약 40여개의 예술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신동호, 2011).
 - 6) 윌리엄스버그지역은 1638년 네델란드의 서인도회사가 원주민들로부터 주변지역을 구입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기원을 볼 수 있다. 2차 대전 후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을 떠나 이곳으로 전입하였으며 양호한 근접성과 저렴한 임대료, 여유 있는 임대공간 등의 이점을 감안하여 1970년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맨하탄에서 윌리엄스버그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는 독일계, 유대계, 푸에르토리코계, 도미니크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인디 록이나 힙합 문화 등이 배드포스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서순복, 2009).

서순복(2009)은 일본의 가나자와 현⁷⁾, 스페인의 바르셀로나⁸⁾, 이탈리아의 볼로냐⁹⁾, 영국의 게이트헤드¹⁰⁾, 프랑스의 남부 소도시인 소피아¹¹⁾, 미국 시카고¹²⁾의 어메니티(amenity)¹³⁾와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통해 창조도시 육성을 위한 영향

- 7) 가나자와는 지난 400년 동안 전쟁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지 않은 드문 도시 중 하나로 작은 교토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옛 에도시대의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가나자와시는 도자기, 염색, 전통술, 간장, 된장, 가발, 다기, 우산 칠기, 금박 같은 전통적 공예품산업으로 소비불황과 경쟁하며 섬유공업의 발전을 이루며 공작기계, 식품, 인쇄, 출판업 등이 발전했다. 1996년에는 섬유산업이 쇠퇴로 방직공장의 창고를 개조한 ‘가나자와 시민 예술 존’을 만들어 새로운 예술창조의 터전으로 24시간 365일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활성화 시켰으며, ‘현대 미술관’을 만들어 21세기 세계도시의 이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인현, 2011).
- 8) 바르셀로나에는 천재적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족(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구엘공원 등 7개의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창조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과 장소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범지역이었던 라발지구에 사회시설(학교, 병원, 양로원, 공장 등)을 정비하고 공공공간을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 도입으로 변화를 도모하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전후로 여러 문화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정비했으며 바르셀로나 미디어재단은 스페인 최대의 두뇌집단으로 문화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서순복, 2009).
- 9) 볼로냐는 역사적 시가지 보존과 재생에 초점을 둔 도심재생전략으로 문화창조 공간으로 거듭난 과거의 유산들을 현대에 살리고 있다. 1980년대 도심재개발 사업은 보존과 재생이라는 슬로건아래 도심의 빵공장, 담배공장, 도살장 같은 오래된 건물을 선정하여 고급아파트가 아닌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을 세웠다. 볼로냐를 일류 연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데는 도심 재개발로 재건축된 어린이 전용극장 ‘페스토니’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되 예술인들에게 자율성을 주어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배우인 동시에 평등한 연대감 안에서 운영된다. 운영비의 60은 시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40은 조합에서 다양한 컨텐츠사업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 10) 인구 20만의 게이트헤드시는 과거 성행하던 석탄, 탄광, 조선업이 1970-80년대 시대조류의 흐름으로 퇴락하며 1980년대부터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게이트헤드시는 3가지 건조물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먼저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추진된 밀레니엄 브릿지는 보행전용으로 설계되어 2001년에 개통되어 하루에 두 번 들어 올려져 워크하는 다리로 알려졌으며, 발틱 현대미술관은 타인강변의 체분소 건물이 철거비용 문제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세이지 음악당은 10년 넘는 공사를 거쳐 개관하여 중앙홀은 연중 개방으로 주민회합공간과 공연공간으로 활용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불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11) 소피아 양떼 폴리스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이티벨리라는데 있다. 1년 내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고 일을 하면서도 맑은 공기와 숲을 즐길 수 있으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국제공항이 가깝고 도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자연을 즐기면서도 도시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시골생활을 하면서도 세계시장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소피아의 성공은 녹지의 1/3만을 개발한다는 원칙을 30년간 철저히 지켜온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 12) 미국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은 인적 역량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역량의 혁신과 시민들의 가치관적 변화에 입각한 행정혁신의 사례로 시카고시의 어메니티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전환을 들 수 있다. 시카고의 제1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시카고는 1995년 이후 Navy Pier에 초대형 관람차와 같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도시의 경관과 호반지역의 산책로, 분수, 해변등과 같은 시설을 갖추는 ‘번햄 계획’으로 미시건 호수 호반지역을 공원으로 보존하였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페스티발과 문화행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도입하며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 13) 어메니티(Amenity): 라틴어로 ‘친근하다’ 또는 ‘쾌적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OECD에서 어메니티는 인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째,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둘째,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 셋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가 그것이다(OECD, 2002). 환경보전, 종합 쾌적성, 청결, 친근감, 인격성, 좋은 인간관계, 공생 등의 여유(경제성, 문화성 등), 건강(환경성, 쾌적성 등), 평온(안전성, 보건성 등)이라고 하는 다양한 가치개념에서 접근하여 왔으며, “인간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과 환경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장소성에서부터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서순복(2009)은 창조도시 육성정책을 위한 성공적 영향요인으로 첫째, 창의적 인재들의 유인과 창조환경의 조성, 둘째, 창의성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 셋째, 역동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신뢰, 넷째, 주민참여 문화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도시의 공공공간 확충, 문화시설 다양화와 같은 하드웨어적 전략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서순복(2009)의 연구는 문화예술도시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 요소들을 제시해주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김인현(2011)은 요코하마시¹⁴⁾와 가나자와시의 비교를 통해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과 자치행정 및 경제인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자세, 둘째, 도시의 전통과 산업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장인기술, 셋째,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자체 행정, 시민, 경제인의 다각적 협력을 통한 도시환경과 복지, 교육, 산업육성 등의 노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넷째,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자립재정의 능력과 자율성이 그것이다. 김인현(2011)은 특색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 경제인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관용하는 협력의 자세가 기본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문화예술도시의 발전요인

연구자	문화예술도시 발전요인
신동호 (2011)	- 덤보지구 : 예술가들에게 업무공간을 제공을 통한 인재들의 유입 - 뱀지구 : 지역의 유희공간 활용 및 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서순복 (2009)	- 창의적 인재들의 유인, - 창조적환경의 조성, -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 - 역동적 네트워크 구축과 신뢰, - 주민참여 문화, 문화시설의 다양화와 공공공간 확충
김인현 (2011)	- 민·관·경제인의 거버넌스적 협력의 자세 - 도시의 전통과 산업의 계승발전 - 도시환경과 복지, 교육, 산업육성의 노력 - 자립재정의 능력과 자율성

심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 개념을 지닌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14) 요코하마시는 에도시대인 1853년에 100가구 정도의 작은 반농반어의 가난한 마을이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함대가 상륙한 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구성되고 발전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도시 분위기가 특징이다. 요코하마시는 도시 미관 대책심의회를 전국최초로 설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지키는 도시계획국에 도시디자인을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야마시다 공원의 경관과 쾌적성을 향상시켰다. 요코하마시는 외국인 거주와 교역이 가능한 항구적 장점을 살려 외부인에게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도시 분위기가 형성으로 전문인력 양성의 인적자원개발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인현, 2011).

이상의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도시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도시의 중심에 창의적 인재들의 역할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 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인 ‘관용’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 경제인의 서로 소통하는 협력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예술도시 발전에 대한 합의

창조도시로 묘사되고 있는 문화예술도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도시 발전에 문화예술인의 역할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둘째,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공간과 문화시설 확충의 전략적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개인, 단체, 정부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자세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문화예술도시를 위한 필수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위한 지역적 합의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Tolerance)”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사례들은 구도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와 의지, 그리고 인식은 정책을 계획하고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핵심적 요소인 “관용”은 문화예술도시로써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합의를 가진다.

3. 관용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관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 검토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Tolerance(관용)”의 어원은 bear(참다), endure(견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tolero¹⁵⁾’의 현재분사 ‘tolerans’에서 파생한 명사 ‘tolerantia’에서 유래되어 개인적 용맹성을 가리키는 말로 ‘상처나 고문으로 인한 아픔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구 언어에서의 “관용(Tolerance)”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혹은 다른 이유에서 거부되는 개인·행동·주장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조상식, 1999). 반면에 동양 언어에서 관용(官用)은 국어사전에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¹⁶⁾’이라고 풀이된다.

“Tolerance(관용)”에 대하여 서양의 역사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관용(Tolerance)”은 16세기 종교적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념적 수용’의 의미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그 시초에는 1562년 1월 17일 종교개혁 과정에 신교도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선포된 이른바 관용의 칙령 즉, “생 제르망 칙령(l’Edit de St. Germain)”이 있다. 생 제르망 칙령(l’Edit de St. Germain)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그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신구교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발표되었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종교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17세기 초반 유럽대륙의 ‘30년 전쟁(1618-1648)’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용재, 2010). 이때, “관용”은 사회적 분란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인 타협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된다. 종교전쟁을 통해 수용되었던 “관용”의 의미는 문화충돌¹⁷⁾로 표현되는 문화갈등상황에서 더욱

15) tolero: tolero는 비슷한 의미의 회랍어 동사 ‘tlao’에서 유래되었다(양승태, 2007;56).

1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675000>

17) 문화충돌: 이슬람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대립, 문명과 문화는 모두 사람들의 총체적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문화다. 사람들은 조상,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관습, 제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문명이라는 문화적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킨다. 사람들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 종교적 이념으로 승화되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2) 관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

‘관용’이 가지는 가치 자체의 개념과 관용의 원리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철학 분야,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치적 영역, 행정적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

철학에서의 “관용”은 김용환·조영제(2000)의 연구를 통해 실용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된다.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관용’에 대하여 도덕적 이상은 아니지만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태도 또는 정도의 문제로서 ‘다원주의 사회의 전략적 가치’로 인식 한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의 전제하에 관용의 윤리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관용의 덕목이 종교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 인종적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였다.

다문화주의¹⁸⁾적 관점에서 ‘관용’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치적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적극적인 교섭과 관용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조화롭게 하기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이념으로 제시된다. J.K Cowan(2006)은 관용에 대해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틀 안에서 착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소수자의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권리적 차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병철(2010)은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인간적 제 권리로부터 소외시켰던 배제와 불관용의 해결 방안으로 타자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 관용은 타자를 우리와 동일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우리와 나를 동일한 권리를 지닌 인간과 개인으로서, 동시에 다른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사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며 힘에 의해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가치에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충돌할 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주장한다(새뮤얼 헌팅턴, 2011).

18) 다문화주의: 한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나 태도 또는 이에 함의된 규범적측면(이데올로기적 측면 포함)과 관련된다(최병두,2011:18).

이수안(2008)은 재독 한인 여성의 이주 정착 과정연구를 통해 ‘이주민’은 주변화 된 반쪽시민(marginalized semi-citizens)의 지위를 갖는 ‘수동적 투입자¹⁹⁾’로 수용하는 측과 수용받는 측의 적극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인 여성들이 독일에 정착할 수 있었던 과정에 이주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관용)에 앞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관용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우선적인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관용의 정도에 따라 이주민들이 그에 반응하고 문화 적응의 형태로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정책적요구로 받아들여져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수안(2009)의 연구는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관용 수준을 확장시켜나가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 반영에 앞서 지역주민의 관용의 정도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변화 혹은 발전시켜나가기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역주민들을 통해 관용의 정도를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최병두(2011)는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를 통해 일본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연구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²⁰⁾’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적 생활영역과, 일부 공적 활동 영역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적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며, 공생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급증에 따른 갈등과 긴장, 기회의 불평등 등이 야기됨에 따른 지역을 위한 통합적 수단으로써, 호혜적 수준의 관용적 사례라고 하였다. “관용”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공생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배제가 존재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 “관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론 정립의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관용성의 확장을 위한 현시점에서의 관용수준을 확인 할 필요성도 제시된다.

이태주·권숙인(2007)은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19) 투입자(闖入者): 메테르링크(Maurice Maeterlinck)의 희곡(1890) “L’Intruse(투입자)”에서 비롯된다. 메테르링크는 걸으로 드러난 현상에 중점을 두지 않고, 보편적 원리와 인간과의 상호 관계를 작품에서 그리고자 했다. ‘투입자(L’Intruse)’란 이름은 없지만, 존재하는, 아니 무어라 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인물을 말한다(권현정, 2011).

20) 다문화 공생 개념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역사회와 무관한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공생관계를 전제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이(異)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확립하는데 의의를 둔다(최병두,2011:35)

극복과정”의 연구를 통해 호주와 일본의 다문화정책사례를 다루었다. 연구에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권리와 문화 정체성의 강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권문제의 개선과 “관용”의 일상적 실천이 시민사회와 시민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류 사회의 이해관계 및 국익의 충돌, 인종적 편견과 문화 본질주의 강화로 국민적 통합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배문화와 소수문화, 주류사회와 이민자 사회 등 지역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며 일정한 상하 위계질서가 구조화되어있다.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용’을 실천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계층간 상하관계가 아닌 파트너라는 인식을 통해 서로 관용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성숙과 시민사회의 합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태주·권숙인(2001)은 차이의 인정과 소통을 통해 인권을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시켜 공동체를 보다 평등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 지향해야 할 정책이념으로써의 ‘관용’을 제시한다.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역의 관용 수준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 맞춰 점진적 인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데 본 연구의 시초를 제공한다.

정치영역에서의 ‘관용’은 열린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획일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합의를 통한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석찬(1992)은 ‘관용’에 대하여 ‘자기와 다른 생활태도, 신념, 습관,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반대하거나 차별하는 태도 즉, 획일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며, Preston King(1996)은 어떤 대상(개인, 집단, 종족, 문화나 예술작품, 종교, 이념과 사상 등)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 부정적 행위(반대, 거부, 억압, 처벌, 배척, 추방, 폭력행사 등)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용재(2010)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관용”은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하였으며, 김수안(2009)은 권위적 명령에 의한 간섭과 방해받지 않고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용납하는 것, 그리고 국가

의 정책으로 사회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영역에서의 또 다른 “관용”은 ‘열린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강자의 관점에서 태도와 정도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조진만·윤종빈·가상준·유성진(2011)은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효과”를 통해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지위가 관용에 미치는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승자는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정책적 위임성이 확보된 상황과 자신들의 이익보호차원에서 다수결원칙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패자에 관용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패자의 경우 승자가 소수자(패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여 관용을 촉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관용”에 있어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베푸는 호혜적 수준인 ‘수용’에 초점을 둔 것이다. “관용”은 강자의 입장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이며, 관용을 위한 태도와 정도의 문제이다.

‘관용’은 서로 다른 선호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하지 않고 기꺼이 허용하여 경청함으로써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이다. 또한, “관용”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와 다른 생활태도, 신념, 습관,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태도, 획일적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용”은 승자와 패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할 때 서로의 다양한 시각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의 영역에서 “관용”은 관료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인식한다. 고창훈·김진호(1994)는 “관용”에 대하여 論語의 ‘寬則得衆 信則民任爲 敏則有功 公則說(관즉득중 신즉민임위 민즉유공 공즉열)’ 과 ‘惠而不備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혜이불비 로이불원 욕이불탐 태이불교 위이불맹)’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관이 너그러우면 대중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일을 민첩하게 하면 공적이 있고, 일을 공정하게 하면 기뻐한다’,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으며, 수고롭게 하되 원망을 받지 않으며, 하고자 하면서도 탐하지 않으며,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스러우면서도 사납지 않다’는 내용이다. 또한, 맹자의 사상을 인용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民爲貴社 稷次之 君爲輕 (민위귀사 직차지 군위경)’으로 그 뜻은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稷次(직차)가 그 다음이고 군주

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다.

행정관료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제시되는 ‘관용’은 인의예지를 실현함에 있어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우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민주화를 위해 주민과의 갈등상황에서 열린 마음과 행동을 통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불관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때 너그러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창훈·김진호(1994)는 하부기관이나 아랫사람의 자율적인 정책 또는 업무수행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관용”의 정도를 확인하고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적영역에서의 관용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표 3> 각 영역별 “관용”의 관점과 같다.

<표 3> 각 영역별 “관용”의 관점

분야	“관용”에 대한 관점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주의: 다원주의 사회의 전략적 가치 - 자유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전제하에 정당화 될 수 있음 - 계몽주의: 종교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 인종적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실마리 제공
다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K Cowan(2006):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틀 안에서 착수되어야 함 - 소병철(2010): 우리와 나를 동일한 권리를 지닌 인간과 개인으로서, 동시에 다른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인정 - 이수안(2008): 수용하는 측과 수용받는 측의 적극적 교섭 필요 - 최병두(2011):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공생해나가기 위한 시초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 이태주·권숙인(2007): ‘관용’의 일상적 실천이 시민사회와 시민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 이태주·권숙인(2001): 차이의 인정과 소통을 통해 인권을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시켜 공동체를 보다 평등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 지향해야하는 정책이념.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석찬(1992): 획일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것 - Preston King(1996): 어떤 대상(개인, 집단, 종족, 문화나 예술작품,

	<p>종교, 이념과 사상 등)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 부정적 행위(반대, 거부, 억압, 처벌, 배척, 추방, 폭력행사 등)를 자발적으로 증지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재(2010):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 김수안(2009): 권위적 명령에 의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존재하거나 행동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용납하는 것,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 - 조진만 외(2011): 열린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강자의 관점에서 태도와 정도의 문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훈·김진호(1994): 관료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인의예지를 실현함에 있어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우선하는 힘이 아닌 하나의 덕목

3) 관용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의 함의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관용을 실천하는 일에는 인내, 참을성, 자비, 너그러움, 수용, 배려, 정의실현, 올바른 방향성의 제시 등의 덕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수용의 수준을 넘어서 서로 다른 선호나 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고 인정하는 존중의 자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용’을 정의해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것,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는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 언어 등 사회가 다변화, 다양화 되면서 갈등이 복잡화되고 있다. 관용의 문제는 덕목일 뿐만 아니라 태도 또는 정도의 문제(matters of attitude or degree)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다양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것이 “관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적용될 때, “관용”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4)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관용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관용을 문화예술도시의 맥락에서 연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플로리다교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플로리다(2008)는 장소가 기술과 인재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게 만드는 “관용”을 구체화하는 지표로 “보헤미안 지수”와 “게이 지수”를 주장한다. 보헤미안지수(Bohemian Index)는 예술가, 음악가 등과 같은 사람들의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창조계급의 밀집의 정도가 고도의 창조 자본을 가진 개인과 하이테크 기업 및 산업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된다²¹⁾. 관용성을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로 제시되는 게이 지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게이들의 수를 통해 관용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창조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게이 지수가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시대 다양성 기준에 최후의 보루로써 집단적으로 특히 높은 수준의 차별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이 공동체를 환영하는 장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적다고 인지한다. 곧, 그들의 인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함께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관용의 필요성은 창조적 계급의 구성원들이 개방적이고 다양한 장소를 선호한다는 플로리다(2008)의 논리를 통해 주창된다. 다른 자원들 즉, 기술과 인재의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관용적인 분위기가 많은 곳이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 제시되어 다양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개방적이며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진 장소는 광범위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창조성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도시와 그 구성원들의 열려있는 “관용”의 자세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를 동원시켜 창조성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발전과 진화하는 공동체 문명의 패러다임 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이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1) 보헤미안은 하이테크 산업(0.38), 인구성장(0.28), 고용성장(0.23)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모두 유의수준 $p < 0.001$ 유의미하다(Richard Florida, 2008:64).

문화예술도시와 관련하여 관용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우리나라 최근의 연구에는 김희순·정희선(2011)의 안산시 원곡동 커뮤니티아트²²⁾인 ‘리트머스²³⁾’를 통한 사례연구가 있다. ‘리트머스’는 소수자의 문화 권리 확보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관용의 차원에서 조성되었다.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참여시켜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관계성과 소통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여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등록 외국인, 귀화인, 유학생이 그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가진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이주 노동자와 그곳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배제되어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관용은 지역주민이나 이주민 내부의 또 다른 불관용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특정 소수 또는 다수 문화가 단지 소수이거나 다수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근거는 없다.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선정에 대한 자의성과 불평등의 문제는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어떠한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집단의 크기와 요구의 강도, 주변의 인정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의 현재 상대가 권위를 갖는 것처럼 인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관용은 서로 공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구별하는 정책이 아닌, 구별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관용”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22)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 커뮤니티 아트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서구에서 촉발된 신제국주의 저항운동 및 반전운동에서 기원한다. 초기 커뮤니티 아트는 기존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말로 공동체예술 혹은 공동체의 이해에서 출발한 예술로 해석되는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중이 예술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미술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공예, 사진, 인형극, 문학 등 광범위한 예술 활동영역을 포함한다(김희순·정희선, 2011; 변재선, 2008; 손은하·신나경, 2010).

23)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새로운 삶과 예술을 실험하고자 하는 예술가, 비평가, 전시기획자, 시민운동가, 노동자, 이주민 등이 함께 모여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이다. 이 공간은 이주민이 80이 넘는 이 지역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들이 집결해 있는 이 지역에서 문화생산과 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상호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사람들이 문화를 매개로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설립되었다(출처: 리트머스 <http://litmus.cc>). 제조업 단지에 근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지라는 안산(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희순·정희선, 2011).

5)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따라 그 요소가 다르다. 고창훈·김진호(1994)는 공적인 영역에서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법률적 영역, 행정적 영역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치적 영역은 정치적으로 반대자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사회·문화적 영역은 사회의 지배세력이 소수 집단에 대하여 편견이나 증오를 통해 차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법률적 영역은 정부가 국민의 집회, 결사, 언론, 사상, 출판 등에 대한 허용의 수준에서, 네 번째, 행정적 영역은 하부기관 또는 아랫사람의 자율적인 정책 또는 업무수행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용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적 영역인 지역주민의 “관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고창훈·김진호(1994)는 사적영역에서의 관용수준 확장이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헌을 통해 사적영역에서 불관용 되는 변수와 그 요인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적영역에서의 “관용”으로 김용환(2006)은 불관용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제시 한다. 첫 번째, 생물학적, 물리적 성격이다. 이는 종족과 성, 나이, 비만 정도, 키 크기, 신체적 결함과 장애 등이 관용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불관용의 근거로 제시된다. 두 번째, 사회적 특징이다. 이것은 역사와, 문화적 조건, 교육환경, 직업과 수입, 거주지역 등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로 불관용을 일상화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에 기초한다. 이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가 가지는 성향이 개인적이라기보다 집단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보존 욕구다. 이는 나와 다른 것을 위협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생존에 잠재적 또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발생한다. 비슷한 논의로서 강석찬(1992)이 제시한 불관용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세 가지는 인종에 따른 불관용, 성(性)적 불관용, 종교적 불관용이 그것이다.

조진만·윤종빈·가상준·유성진(2011)은 관용 수준을 결정짓는 변수로 선거에서의 승자·패자, 성별, 연령, 이념,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를 통해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관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이념은 정치관용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사적영역에서의 관용수준은 공적영역에서의 관용 수준을 결정짓게 한다. 그리고 윤상우·김상돈(2010)은 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정치적 성향, 세계화에 대한 인식, 민족의식,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표 4> ‘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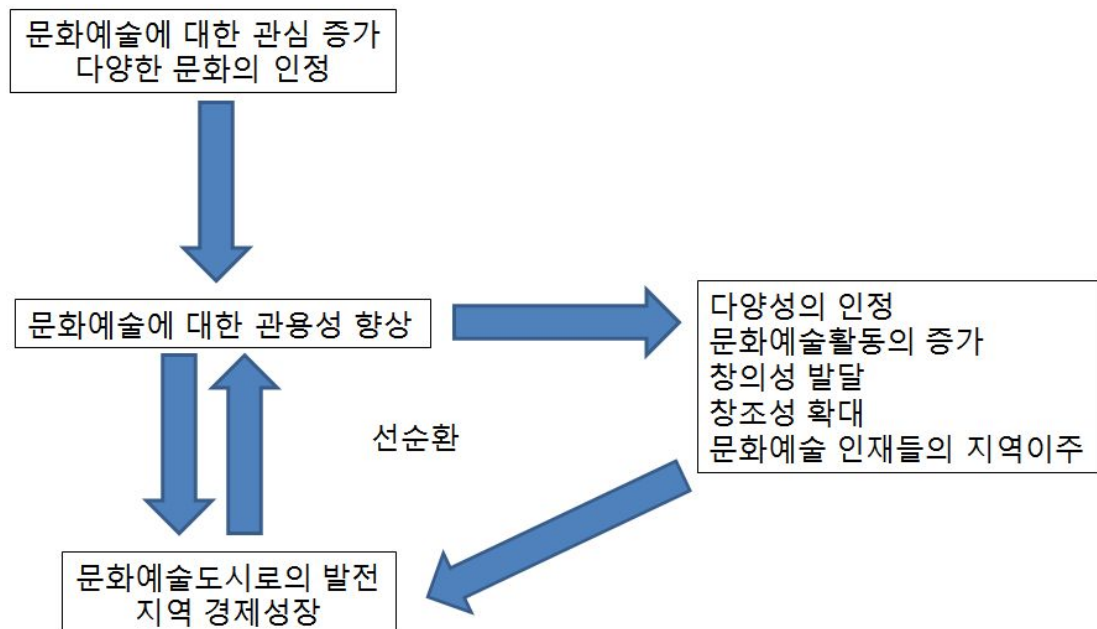
연구자	‘관용’의 변수
김용환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물리적 성격: 종족, 성, 나이, 비만정도, 키, 신체적 결함 등 - 사회적 특징: 역사, 문화적 조건, 교육환경, 직업과 수입, 거주지역 등 - 사람들이 지지하는 신념이나 태도 -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자기보존 욕구
강석찬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성, 종교
조진만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자·패자, 성, 연령, 이념, 교육수준, 소득수준
윤상우·김상돈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관 : 정치적 성향, 세계화 인식, 민족의식, 유교적 가치관

이상의 논의에서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종족, 성별, 나이, 비만, 키, 신체적 결함, 역사, 문화적 조건, 교육환경, 직업과 수입, 거주 지역, 신념, 태도, 정치적 이데올로기 신봉경향, 종교,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자기보존 욕구, 세계화인식, 민족의식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조진만 외(2011)는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육변수와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변수와 소득수준이 관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검토에 대한 함의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작금의 문화예술분야의 중요 키워드는 차별성, 창의성, 관용, 문화예술도시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여 제주지역에 제시하였을 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의 저의를 보여주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인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관용’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 발전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공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증가는 다양성의 인정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의 증가, 창의성 발달, 창조성 확대 등으로 나타나며 문화예술 인재들의 지역으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인재들의 집중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맞물리며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지역의 발전은 다시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관용성이 증가하게 함으로써 다시 선순환 되는 구조로 발전하게 할 것이다.



<그림 1> 제주지역발전 관용의 역할모델

Ⅲ. 설문조사분석의 설계

1. 조사분석의 개요 및 의의

1) 조사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관용”을 지역의 가치로 삼고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의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설문함으로써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인식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설문의 조사와 분석을 위한 대략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의 제주지역주민이다. 1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 한 이유는,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설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며, 중학생의 경우 사춘기²⁴⁾를 겪을 시기인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생정도면 사회에 대한 자기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였다. 설문지는 총55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총 480부로, 제주시 344부, 서귀포시 98부 총 445부를 조사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5월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은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은 총 6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은 다시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측면(1)’ 6문항, ‘예술인에 대한 활동 측면’ 30문항,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측면(2)’ 15문항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

24) 사춘기(puberty)의 개념은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 중에 하나로 2차 성징의 출현과 발달에 관한 생물학적연구를 통해 사춘기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갈등의 문제, 자기 이미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주제들과 연계되면서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주요 호칭으로 발전되었다(최윤진, 2008).

시하였다.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측면(1)’과 ‘예술인에 대한 활동 측면’ 36문항의 질문은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측면(2)’ 15문항은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인 설문내용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써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코딩을 역점수로 환산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관용성’에 대한 총 61개의 문항 전부 점수가 높은 것이 관용성을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조사분석의 의의

“관용”을 통해 개방성이 형성된 장소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부터 나오는 창조적 에너지를 동원하고 유인하는 장소가 된다. 플로리다(2008)는 “관용”이 장소와 기술과 인재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요소로써 지역의 축적된 자산이라고 하였다. 또한 “관용”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관광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을 통한 “관용”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의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관용의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관용”정책은 외부로의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을 높이고 창의적 인재들의 입지 결정을 유발시키는 기본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Walzer(2004:74)는 프랑스에 대하여 고전적인 민족국가인 동시에 유럽에서 주도적인 이민자사회로써 원주민을 민족으로 인정하고 그들 민족적 삶의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회구성원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개인으로 관용된다고 하였다. 프랑스는 20세기 초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출신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파리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몽마르트 언덕에는 가난한 외국인 예술가들이 터를 잡았고, 몽파르나스 기차역 주변 카페에서는 피카소²⁵⁾, 헤밍웨이²⁶⁾, 조이스²⁷⁾, 모

25) Pablo Ruiz Picasso(1881.10.25-1973.4.8) : 스페인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프랑스 미술에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했다. 1900년 19세 처음 파리를 방문하였으며, 다음해 재차 방문하여 몽마르트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제작활동을 하고 있던 젊은 보헤미안의 무리에 합류하였다. 르누아르, 들루즈, 몽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으며 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으며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피카소는 스탈린을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이 스탈린에 대한 조롱으로 해

딜리아니²⁸⁾, 만 레이²⁹⁾ 등 외국에서 몰려온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게 하였다. 1920-30년대 파리는 유럽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 세계의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로스³⁰⁾, 베크만³¹⁾, 칸딘스키³²⁾ 같은 독일의 예술가들은 히틀러의 나치즘을 피해 피신해 오기도 하였다³³⁾. 이러한 프랑스의

석되어 1957년에 제명되기까지 프랑스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자였으며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미국의 잔학행위(노근리 학살)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피카소는 미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알렸다. 대표적 작품으로 스페인 내전에서 게르니카 민간인들이 나치독일공군의 폭력으로 학살당한 게르니카 학살사건(1938)을 고발한 <게르니카>가와 <아비뇰의 처녀들> 등이 있다 (출처:<http://ko.wikipedia.org>, <http://www.doopedia.co.kr>).

26) Ernest Miller Hemingway(1899.7.21-1961.7.2): <노인과 바다> 1952년 풀리처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이다.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인간의 비국적인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의 대표 작가이다(<http://www.doopedia.co.kr>).

27) James Augustine Aloysius Joyce(1882.2.2-1941.1.13): 아일랜드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20세기 문학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한 작가이다. 아일랜드의 문예부흥 기운에 반발하여 학교 졸업과 동시에 파리로 갔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취리히로 피난, 1920년부터 파리로 옮겨 새로운 문학의 핵심적 존재가 되었다. 대표작으로 <더블린의 사람들>, <율리시스> 등이 있다(<http://www.doopedia.co.kr>).

28) Amedeo Modigliani(1884.7.12-1920.1.24): 이탈리아 태생으로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이며 조각가이다. 특정한 사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폴 세잔, 야수파, 입체파, 아프리카 미술 등 다양한 미술양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1906년 파리로 이주한 모딜리아니는 몽마르트르에 정착했다. 그는 콜라로시 아카데미에서 인체소묘와 유희를 공부하는 한편 파블로 피카소, 지노 세베리니, 앙리 툴루즈, 폴 세잔 등에 영향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첼로 연주자>, <여인의 두상>, <붉은 누드>, <잔 에뷔테른의 초상> 등이 있다(<http://www.doopedia.co.kr>).

29) Man Ray(1890.8.27-1976.11.28): 미국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이다. 1921년 파리로 이주하여, 앙드레 브르통이 이끄는 초현실주의 예술가 및 작가 그룹에 참여했으며, 그림을 그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라는 매체로 끊임없이 실험을 거듭했던 그는 '카메라 없이 찍은' 사진, 또는 그 자신이 레이오그래프(rayograph)라고 불렀던 포토그램 제작법을 재발견했다. 감광지(感光紙) 위에 평평하지만 투명도가 다양한 3차원적인 여러 가지 물체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빛에 노출시켰다가 현상함으로써 레이오그래프를 제작했다. 1922년 그는 레이오그래프 모음집 <유쾌한 시야(視野) Les Champs délicieux>를 출판했다. 1929년에는 솔라리제이션(solarization)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재발견했는데, 이것은 인화지나 음화(陰畵)를 현상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빛에 노출시켜 사진 영상의 한 부분은 음화로, 다른 부분은 양화(陽畵)로 만드는 것이다. 레이는 184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던 이 과정을 미학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다(브리태니커 백과, <http://www.doopedia.co.kr>).

30) George Grosz(1883-1959.7.6): 독일의 화가, 독일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며, 극적인 구성과 신랄한 풍자로 당대 독일의 사회상 및 인간 욕망의 추악성을 고발했다. 1919년 독일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20년대에 디스와 함께 '신즉물주의' 그룹을 결성했다. '신즉물주의'는 불안정한 시대 배경 속에서 현실에 대한 철저한 해부를 목표로 하는 이 경향은 시대가 지닌 표정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사실적 기법의 세밀 묘사를 주로 채택했다. 그로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실업자, 불구자, 빈민굴과 매음굴의 광경을 재현했으며, 사회의 탐욕과 부패, 인간욕망의 추악성을 극적인 구성과 신랄한 풍자로 표현해 냈다(<http://www.doopedia.co.kr>).

31) Max Beckmann(1884.2.12-1950.12.28); 1,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독일 미술계를 이끌었던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표현주의, 입체주의, 신즉물주의 등 다양한 양식을 넘나들었다. 1933년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퇴폐미술가'로 낙인 찍혀 작품을 몰수당하고 독일을 떠나야 했다. 칸딘스키는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이탈, 선명한 색채로써 음악적이고 다이내믹한 추상표현을 이루어냈다(<http://www.doopedia.co.kr>).

32) 1933년 나치스의 탄압으로 바우하우스가 강제로 폐쇄하자 파리로 망명을 떠났고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 1937년 나치스가 퇴폐예술가라고 지적하여 작품이 몰수당하기도 했다(<http://www.doopedia.co.kr>).

개방정책은 다양한 외국 이민자들을 수용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웃국가로부터 ‘플레랑스의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학수, 2008:338).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로 풍류를 즐기며 좋아하나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냉정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인간 창조성의 근원은 문화예술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적 범위의 확장은 지역의 발전과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금, 제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박신의(2004;106)에 의하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움직이는 것으로 교류를 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는 관용적인 지역의 분위기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교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대중의 삶으로, 지역의 문화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플로리다(2008)는 지역의 관용적인 분위기가 창조적 인재들을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창조적 분위기와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기업의 유치를 위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업을 자발적으로 오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향상되면 지역주민 삶의 수준과 더불어 경제적 발전도 함께할 것이라는 데 기인한다. 관용의 지역,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공간으로써의 확장은 문화의 민주화를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대중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관용’은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의 성장에 관광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상호 영향력을 고려하는데 있어 “관용”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는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 될 수 있다.

33) 디디에 오탕제르, 이화여대통역번역대학원 공동번역연구회 옮김, 『1930년대』, 창해(2001), p.24

2. 조사방법과 설문문의 구성

1) 조사방법 및 설문문의 구성

설문을 구성함에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관용”에 대한 인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연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을 지표설정부터 분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설검증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먼저 선정한다. 예를 들어 불관용의 표현으로써 “음악 하는 사람은 클래식 여부를 떠나서 판따라라고 칭한다.” “미술을 하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한다.” “공부를 못하니 음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을 하면 밥 굶는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둘째, 변수를 설정하여 가설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로 김용환(2006)이 제시한 “성, 나이, 교육수준, 직업, 수입”, 강석찬(1992)이 제시한 “거주 지역”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역과 직업, 문화예술관련 취미여부, 가족 또는 친인척 중에 예술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관용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취미생활여부, 가족 혹은 친인척 중 예술관련 직업의 유·무”를 추가 변수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가설에 의해 구성된 설문은 개념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첫째, 많은 변수들을 공통 요인으로 묶어 줌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약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공통된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동일 개념을 측정한 변수들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묶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특정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한승준, 2008:445). 셋째, 설문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별, 학력,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관용성에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세부적인 설문내용으로 들어가 적극 수용할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극 수용=7, 수용=6, 약간 수용=5, 보통=4, 약간 불수용=3, 불수용=2, 수용불가=1”의 7점의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단, 지능지수와 호칭관련 등의 부정형 질문인 인식측면(2)의 설문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적극 수용=1, 수용=2, 약간 수용=3, 보통=4, 약간 불수용=5, 불수용=6, 수용불가=7”로 제시하였다.

<표 5> 설문지의 구성 변수

변수		문항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이상
3	거주지역	① 제주시(읍/면/동) ② 서귀포시(읍/면/동)
4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5	월 소득	① 없음 - 100만원대 ② 200만원대 ③ 300만원대 ④ 400만원이상
6	직업	① 전문직(의사, 교수, 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② 공무원(일반직, 선출직, 교사 등) ③ 제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사무, 판매업) ④ 농·수·축산업 ⑤ 전업주부 ⑥ 학생 ⑦ 무직 ⑧ 기타 ()
7	(식구/친인척 중) 예술관련 직업	① 있다(분야:) ②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커트 척도법은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는 개인의 가치나 태도를 묻는 항목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평가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완전히 배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척도 구성이 간단하면서도 비슷한 결과를 산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사례자의 태도나 강도가 정확히 일치하기 힘들며 엄격한 등간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점, 총점이 뜻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분명치 못해 각 항목에 표현한 사례자들의 태도의 강도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점, 대표성 있는 사례자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한승준, 2006;166).

추가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조상희(2011), 곽한병(2008)이 연구한 설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삶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신조항(2010), 조상희(2011), 곽한병(2008), 임점주(2010)가 작성한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6> 연구의 가설

번호	가설
가설1	남성보다 여성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3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4	예술과 관련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5	예술활동의 분야에 따라 관용의 수준은 다를 것이다.
가설6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귀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7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직업으로서 예술인이 있는 가정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8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2) 설문항목의 구성과 기본사항

(1)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의 관용

설문의 내용은 직업과 진로, 주요인식에 대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파악하고자 구성하였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인식의 관용 수준, 둘째, 문화활동의 종류와 장소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관용 수준이다.

(2)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측면의 설문(1)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측면의 설문(1)은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 예술학교 진학과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용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 7>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설문

번호	문 항
1	자녀가 다니던 직업을 그만두고 예술인의 직업을 가지려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예술학교에 진학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국악예술학교에 진학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4	예술인의 정치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	만약 예술가가 지역에서 정치 또는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6	예술인은 ‘개방적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측면의 설문(2)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관용의 정도를 가늠하고자 구성하였다. 관용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7점 ‘수용불가’이며 1점 ‘적극수용’은 관용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설문분석은 연구문제의 방향일치를 위해 역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할 것이다.

<표 8>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설문(2)

번호	문 항
*미술(그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미술인은 “환쟁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2	‘미술인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3	‘미술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4	‘미술인은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5	‘미술을 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음악(악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	‘악기연주자는 “딴따라”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2	‘악기연주자는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3	‘악기연주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4	‘악기연주자는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5	‘악기연주자는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음악(합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1	‘노래하는 사람은 “풍각쟁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2	‘노래하는 사람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3	‘합창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4	‘노래를 하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5	‘노래를 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연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1	‘연극하는 사람은 “광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2	‘연극인하는 사람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3	‘연극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4	‘연극인은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5	‘연극을 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국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1	‘국악인은 “광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2	‘국악인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3	‘국악단체가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4	‘국악인은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5	‘국악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 측면의 질문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 측면의 질문은 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수용수준에 대한 관용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제시하였다. 문화예술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1항)에서의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측면에서 미술(그림)활동과, 동적인 측면에서 ‘연극 활동’을, 그리고 소음의 측면에서 음악분야의 악기와 합창을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통음악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국악 활동’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범위에 한하여 설문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 9>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설문

번호	문 항
*미술인(그림)에 대한 질문입니다.	
7	미술인들이 9시 - 18시에 직장주변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8	미술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6시 이후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9	미술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0	미술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그림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1	미술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6시 이후에 그림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2	미술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그림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음악인(악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연주가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악기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4	연주가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악기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5	연주자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악기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6	연주자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악기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7	연주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악기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8	연주자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악기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음악인(합창)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음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합창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0	음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합창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1	음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합창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2	음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합창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3	음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합창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4	음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합창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연극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연극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연극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6	연극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연극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7	연극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연극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8	연극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연극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9	연극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연극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0	연극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연극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국악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국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국악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2	국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국악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3	국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국악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4	국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국악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5	국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국악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6	국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국악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 문화활동의 참여도에 관한 설문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조상희(2011)와 곽한병(2008)의 설문에서 문화(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부분의 설문을 인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문화 활동의 내용, 누구와 하는지, 횟수는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6) 삶의 만족감과 관련된 설문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신조황(2010)의 연구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설문, 조상희(2011)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설문, 곽한병(2008)의 삶의 질에 관련된 설문, 임점주(2010)의 생활 만족감과 관련된 설문의 내용을 통해 6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 맞게 문안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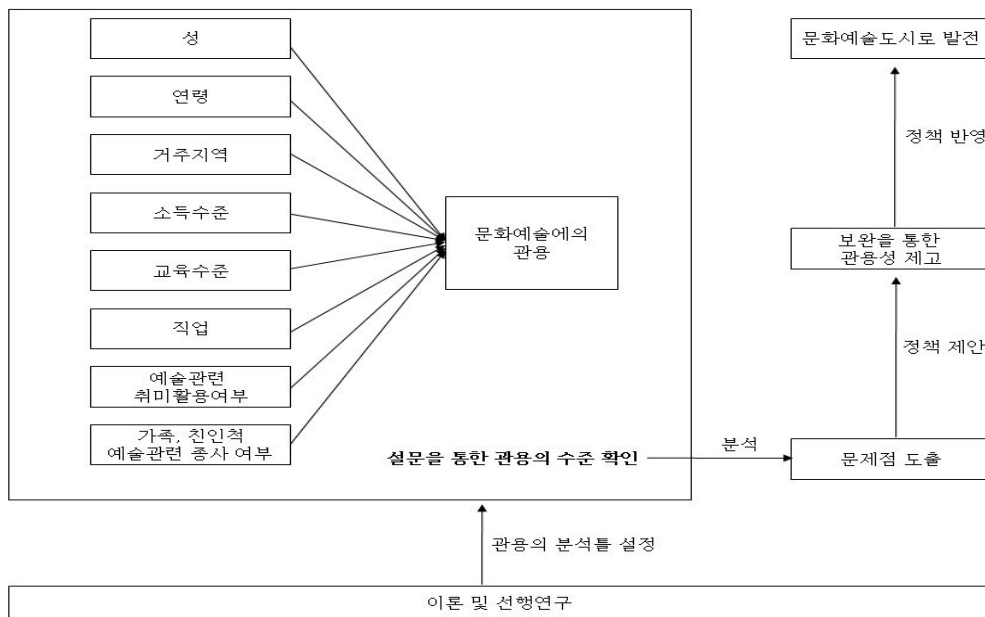
(7) 기본사항에 대한 설문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적용하고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소득, 직업, 예술관련 활동 여부, 친·인척 중에 예술분야 관련 직업의 유·무를 설문변수로 지정하여 제시하였다.

3. 분석의 틀과 표본의 구성

1) 연구의 흐름 및 분석의 틀

연구의 흐름은 (그림2)와 같다.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관용”에 대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둘째, 제주지역 주민에게 설문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관용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또한, 관용의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의 흐름 및 분석의 틀

2) 표본의 크기 및 표본의 구성

설문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용” 개념의 범위 내에서 설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시점이며, 조사범위는 사례지역인 제주도의 제주시

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인구 427,567명을 모집단으로 한다.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이 주어졌을 경우 다음의 공식을 중심으로 계산할 수 있다³⁴⁾.

$$S = \frac{Z^2 NP(1-P)}{d^2(N-1) + Z^2 P(1-P)}$$

여기에서 S : 표본의 크기

N : 모집단의 크기

P : 응답에서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이 일어날 확률 0.5

d : 허용오차 05

Z^2 : 허용오차 05에서 Z^2 의 값 3.841 이다.

$$S = \frac{Z^2 NP(1-P)}{d^2(N-1) + Z^2 P(1-P)} = \frac{3.841 \times 427,567 \times 0.5 \times (1-0.5)}{0.05^2 \times (427,567 - 1) + 3.841 \times 0.5 \times (1-0.5)} = 383.75$$

따라서, 제주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427,567명을 모집단으로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표본의 크기는 384가 된다. 표본수 384명을 연령별로 비례하여 나누어보면 아래의 <표 10> 설문지의 표본과 같다.

<표 10> 설문지의 표본 (단위 : 명,)

구분	연령	인구수	비율	남성			여성			표본 합계
				남성	비율	표본 수	여성	비율	표본 수	
	총 합 계	427,567	100	208,903	48.86	188	218,664	51.14	196	384
제주 시	10대(15세-19세)	30,991	9.66	16,224	56	15	14,767	4.60	13	28
	20대	48,627	15.15	25,121	7.83	23	23,506	7.32	21	44
	30대	63,723	19.86	31,654	9.86	28	32,069	9.99	29	57
	40대	68,567	21.37	34,797	10.84	31	33,770	10.52	30	62
	50대	47,678	14.86	23,964	7.47	22	23,714	7.39	21	43
	60대 이상	61,318	19.11	24,890	7.76	22	36,428	11.35	33	55
	제주시 합계	320,904	755	156,650	48.82	141	164,254	51.18	148	288

34) Krejcie & Morgan, 1970:607-610

서귀포시	10대(15세-19세)	8,173	7.66	4,364	49	4	3,809	3.57	3	7
	20대	11,217	10.52	6,258	5.87	6	4,959	4.65	4	10
	30대	17,015	15.95	8,947	8.39	8	8,068	7.56	7	15
	40대	21,392	206	11,215	10.51	10	10,177	9.54	9	19
	50대	18,213	178	9,111	8.54	8	9,102	8.53	8	16
	60대 이상	30,653	28.74	12,358	11.59	11	18,295	17.15	16	27
	서귀포시합계	106,663	24.95	52,253	48.99	47	54,410	511	47	94

※ 출처: 2012년 통계청 (<http://www.kostat.go.kr/>)

본 연구는 2012년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도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무작위 표본추출법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동일하고 독립적인 추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모집단에서 그 수가 적은 구성요소는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표본으로 추출될 보장이 없다는 점, 셋째, 표본 추출의 특성을 작성하는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한승준, 2006:272)는데 한계를 가진다.

IV. 문화예술분야 관용에 대한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된 설문지는 총 480부이며, 그 중 제주시 344부, 서귀포 98부 총 44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교차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 ‘모집된 표본 유형별 대상자 수’와 같다.

<표 11> 모집된 표본 유형별 대상자 수 (단위: 명,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남성	비율	여성	비율	합계	비율	남성	비율	여성	비율	합계	비율
연령별	10대	15	10.2	15	7.6	30	8.7	4	2.7	3	1.5	7	7.1
	20대	23	15.6	21	10.7	44	12.8	6	4.1	4	2	10	10.2
	30대	31	21.1	46	23.4	77	22.4	8	5.4	7	3.6	15	15.3
	40대	32	21.8	55	27.9	87	25.3	10	6.8	9	4.6	19	19.4
	50대	23	15.6	25	12.7	48	14	8	5.4	8	4.1	16	16.3
	60세 이상	22	15	34	17.3	56	16.3	11	7.5	20	10.2	31	31.6
	무응답	1	0.7	1	0.5	2	0.6	0	0	0	0	0	0
소계		147	42.7	197	57.3	344	100	47	48	51	52	98	100
학력별	중졸이하	13	8.8	25	12.7	38	11	1	0.7	6	3	7	7.1
	고졸	19	12.9	35	17.8	54	15.7	10	6.8	21	10.7	31	31.6
	대졸	71	48.3	97	49.2	168	48.8	25	17	16	8.1	41	41.8
	대학원이상	8	5.4	12	6.1	20	5.8	2	1.4	0	0	2	2
	무응답	36	24.5	28	14.2	64	18.6	9	6.1	8	4.1	17	17.3
소계		147	42.7	197	57.3	344	100	47	48	51	52	98	100
소득별	0-100만원대	62	42.2	123	62.4	185	53.8	9	6.1	23	11.7	32	32.7
	200만원대	34	23.1	44	22.3	78	22.7	16	10.9	22	11.2	38	38.8
	300만원대	31	21.1	12	6.1	43	12.5	14	9.5	5	2.5	19	19.4

	400만원이상	11	7.5	2	1	13	3.8	8	5.4	0	0	8	8.2
	무응답	9	6.1	16	8.1	25	7.3	0	0	1	0.5	1	1
	소계	147	42.7	197	57.3	344	100	47	48	51	52	98	100
직업별	전문직	8	5.4	13	6.6	21	6.1	6	4.1	3	1.5	9	9.2
	공무원	52	35.4	44	22.3	96	27.9	10	6.8	6	3	16	16.3
	제조,상공, 서비스	18	12.2	31	15.7	49	14.2	9	6.1	15	7.6	24	24.5
	농,수,축산업	5	3.4	9	4.6	14	4.1	11	7.5	9	4.6	20	20.4
	전업주부	0	0	17	8.6	17	4.9	0	0	4	2	4	4.1
	학생	32	21.8	24	12.2	56	16.3	8	5.4	7	3.6	15	15.3
	무직	15	10.2	18	9.1	33	9.6	1	0.7	5	2.5	6	6.1
	기타	16	10.9	38	19.3	54	15.7	1	0.7	2	1	3	3.1
	무응답	1	0.7	3	1.5	4	1.2	1	0.7	0	0	1	1
	소계	147	42.7	197	57.3	344	100	47	48	51	52	98	100
가족 중 예술인	있다	15	10.2	36	18.3	51	14.8	6	4.1	2	1	8	8.2
	없다	131	89.1	157	79.7	288	83.7	41	27.9	49	24.9	90	91.8
	무응답	1	0.7	4	2	5	1.5	0	0	0	0	0	0
	소계	147	42.7	197	57.3	344	100	47	48	51	52	98	100

지역별 대상자는 제주시 전체조사자 344명 중 여성은 197명(57.3%)으로 남성 147명(42.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87명(25.3%), 30대 77명(22.4%), 60세 이상 56명(16.3%), 50대 48명(14%), 20대 44명(12.8%), 10대 30명(8.7%) 순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168명(48.8%), 무응답 64명(18.6%), 고졸 54명(15.7%), 중졸이하 38명(11.0%), 대학원이상 20명(5.8%)이다. 여기서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학생의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소득별로는 0-100만원대 185명(53.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만원대 78명(22.7%), 300만원대 43명(12.5%), 무응답 25명(7.3%), 400만원이상 13명(3.8%)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경우는 소득에 대한 대답에 무응답과 0-100만원대 두 가지로 나뉘어 응답하였기 때문에 0-100만원대와 무응답의 답변에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96명(27.9%)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56명(16.3%), 제조·상공·서비스 49명(14.2%), 전문직 21명(6.1%), 전업주부 17명(4.9%), 농·수·축산업 14명(4.1%)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또는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288명(83.7%)으로 ‘있다’고 대답한 경우 51명(14.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은 전체 표본 98명중 남성47명(48%), 여성 51명(52%)이다. 연령별로는 60대이상 31명(31.6%), 40대 19명(19.4%), 50대 16명(16.3%), 30대 15명(15.3%), 20대 10명(10.2%), 10대 7명(7.1%)이며, 학력은 대졸 41명(41.8%), 고졸 31명(31.6%), 중졸이하 7명(7.1%), 대학원이상 2명(2.0%)이다. 소득별로는 200만원대가 38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0-100만원대 32명(32.7%), 300만원대 19명(19.4%), 400만원이상 8명(8.2%)이다. 직업별로는 제조·상공·서비스업이 24명(24.5%), 농·수·축산업 종사자 20명(20.4%), 공무원 16명(16.3%), 학생 15명(15.3%), 전문직 9명(9.2%)이다. 가족 또는 친인척 중에 예술인이 ‘있다’는 답변은 8명(8.2%)으로 ‘없다’는 답변 90명(91.8%)보다 훨씬 적어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사례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성비의 차이가 조금 있으나, 설문조사 과정에 여성의 사례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성비구성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표본수 이상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다.

2.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 파악하고(송지준, 2011;61),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함이다(노형진, 2006;439).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나타난 유의수준이 0.000으로 $p < 0.001$ 이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2>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8743.047
	자유도	1830
	유의확률	.000**

주) * $p < 0.05$, ** $p < 0.01$

요인분석의 목적은 데이터를 축소하는데 있다. 요인분석에 의해 5문항이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문항은 1-1)‘미술인은 환쟁이다’, 2-1)‘연주자는 판따라다’, 3-1)가수는 풍각쟁이다, 4-1)‘연극인인 광대다’, 5-1)‘국악인은 광대다’라는 문항이다. 적합하지 못한 5문항을 제외하고 분석된 kaiser-Meyer-Olkin(KMO)값은 0.92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성분분석은 모든 측정변수는 정보들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수많은 변수를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송지준, 2012;82).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고유값³⁵⁾ “1”이상, 요인적재치 0.4이상을 기준

35) 고유값은 한 요인의 설명력으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그 요인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

으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로 성분 행렬의 요인 분산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한승준, 2006;453).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해 7차례 반복계산 후 얻어진 결과는 총 56개의 변수가 9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13> 요인분석 및 요인의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항목이 삭제된 경우 α 값	Cronbach α
1. 경제능력	연극하면 밥 굶는다	.89	.84	9.33	15.29	.96	.96
	국악하면 밥 굶는다	.89	.82			.96	
	국악인은 가난하다	.87	.79			.96	
	음악인(노래)하면 밥 굶는다	.87	.83			.96	
	연극인은 가난하다	.86	.79			.96	
	악기연주하면 밥 굶는다	.86	.81			.96	
	악기연주자는 가난하다	.85	.80			.96	
	음악인(노래)은 가난하다	.85	.80			.96	
	미술하면 밥 굶는다	.81	.73			.96	
	미술인은 가난하다	.79	.70			.96	
2. 주변활동	직장주변에서 합창연습	.84	.80	6.81	11.17	.94	.95
	직장주변에서 국악연습	.84	.81			.94	
	주거지역에서 합창연습	.83	.80			.94	
	주거지역에서 국악연습	.81	.81			.94	
	주거지역에서 악기연습	.80	.74			.94	
	직장주변에서 악기연습	.79	.75			.94	
	직장주변에서 연극연습	.74	.72			.94	
	주거지역에서 연극연습	.72	.69			.94	
3. 야외활동	야외 연극공연	.84	.84	6.30	10.33	.94	.95
	야외 국악공연	.81	.77			.94	
	야외 합창공연	.79	.79			.94	
	야외 악기공연	.78	.77			.94	
	야외 연극연습	.77	.77			.94	
	야외 국악연습	.76	.75			.94	
	야외 합창연습	.76	.78			.94	
	야외 악기연습	.69	.72			.94	

미하는 것으로 요인수 결정에서는 고유값 “1” 이상을 갖는 요인의 수만큼을 추출한다. “1” 이하가 되면 해당 요인이 1개의 변수에 해당하는 분산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인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승준, 2006;448)

4. 공연 활동	주거지역에서 국악공연	.79	.74	5.46	8.96	.92	.93
	주거지역에서 연극공연	.75	.73			.92	
	주거지역에서 합창공연	.75	.72			.92	
	직장주변에서 국악공연	.74	.70			.92	
	주거지역에서 악기공연	.74	.73			.92	
	직장주변에서 합창공연	.67	.69			.92	
	직장주변에서 연극공연	.66	.70			.92	
	직장주변에서 악기공연	.64	.66			.92	
5. 미술 (그림) 활동	직장주변에서 그림전시	.81	.79	5.38	8.83	.90	.91
	야외에서 그림연습	.78	.77			.91	
	주거지역에서 그림전시	.78	.80			.89	
	직장주변에서 그림연습	.78	.69			.89	
	야외에서 그림전시	.71	.74			.89	
	주거지역에서 그림연습	.66	.65			.90	
6. 지식 수준 인식	연극인은 지식이 낮다	.85	.86	4.28	7.03	.94	.94
	연주자는 지식이 낮다	.85	.86			.92	
	국악인은 지식이 낮다	.84	.84			.93	
	음악인(노래)은 지식이 낮다	.83	.84			.93	
	미술인은 지식이 낮다	.75	.74			.93	
7. 단체 공간의 임대	연주단체입주 전세가하락	.78	.84	3.87	6.35	.92	.91
	합창단체입주 전세하락	.75	.83			.89	
	연극단체입주 전세하락	.69	.81			.88	
	국악단체입주 전세하락	.64	.75			.88	
	미술단체입주 전세하락	.57	.60			.90	
8. 예술인 활동	자녀가 예술학교에 진학한다면	.83	.90	3.28	5.38	.89	.90
	자녀가 국악예술학교에 진학한다면	.80	.80			.80	
	자녀가 예술인직업을 가질 때	.79	.79			.89	
9. 정치 활동	예술인이 선거에 출마한다면	.89	.90	2.05	3.37	.70	.85
	예술인이 정치활동을 한다면	.85	.89			.71	
	예술인은 개방적이다	.54	.57			.92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사례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송지준, 2012;100).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요인7)과 요인9) 각각 1개의 항목을 삭제하였을 경우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삭제된 문항은 요인7)의 1-3번 ‘미술단체 입주시 전세값 하락’에 대한 문항과 요

인9)의 6번 ‘예술인의 개방성’에 대한 문항이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총 445명의 응답자 중 요인1)은 444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는 전체 99.8% 비율이며 Cronbach α 값은 0.969이다. 요인2)는 443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99.6%에 해당한다. α 값은 0.952이다. 요인3)은 438사례가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98.4%이다. α 값은 0.951이다. 요인4)는 437개의 사례가 분석되었으며 전체 98.2%에 해당한다. α 값은 0.936이다. 요인5)는 441개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99.1%이다. α 값은 0.914이다. 요인6)은 443건으로 이는 전체 99.6%이다. α 값은 0.947이다. 요인7)은 총 사례수인 445건이 분석되었으며 α 값 0.918이다. 요인7)에서 항목이 삭제된 경우 α 값 가운데 1-3번 문항인 ‘미술단체 입주시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을 경우 α 값이 0.9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1개의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α 값은 0.925이다. 요인8)은 444건이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99.8%이며 α 값은 0.905이다. 요인9)는 443건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99.6%에 해당한다. 그러나 항목이 삭제된 경우 α 값 가운데 6번 문항인 ‘예술인의 개방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을 경우 α 값이 0.928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1개의 문항을 제외한 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 요인1), 2), 3), 4), 5), 6), 8)은 항목이 삭제된 경우 α 값이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문항의 제거 없이 모두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인7), 9)의 경우 각각 1개의 문항을 제거할 때 α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각 1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제거된 문항은 총 2개의 문항으로 6번 예술인의 개방성에 대한 수준을 묻는 질문과, 1-3번 ‘미술단체 입주시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3. 조사 대상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사례자들 가운데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사례자 440명 중 147명(33.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은 악기 48명(10.9%), 합창 31명(7%), 연극 29명(6.6%), 미술(그림) 25명(5.7%) 순이었다.

<표 14> 사례자들의 문화활동 여부

참여 활동유형	빈도	퍼센트
합창활동	31	7.0
악기활동	48	10.9
미술(그림)활동	25	5.7
연극활동	29	6.6
국악활동	8	1.8
기타활동	6	1.4
활동없음	293	66.6
합계	440	100.0

문화활동을 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응답은 가족과 함께 한다는 답변이 44명(2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이 40명(26.5%), 동호인과 함께 35명(23.2%), 혼자 활동하는 경우는 21명(13.9%)이다.

<표 15> 문화활동시 동반참여자

문화활동 동반참여자	빈도	퍼센트
가족과 함께	44	29.1
친구와 함께	40	26.5
동호인과 함께	35	23.2
혼자	21	13.9
기타	11	7.3
합계	151	100.0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횟수는 주1회가 71명(49.3%)로 가장 높았으며 주2회가

20명(13.9%), 주3회가 6명(4.2%)이며, 주4회는 2명(1.4%)으로 가장 낮았다.

<표 16> 문화활동 참여횟수

문화활동 횟수	빈도	퍼센트
주1회 참석	71	49.3
주2회 참석	20	13.9
주3회 참석	6	4.2
주4회 참석	2	1.4
기타	45	31.3
합계	144	100.0

참여하고 싶은 문화활동에 대한 응답은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167명(39.4%)로 가장 높았으며, 그림 112명(25.2%), 국악 50명(11.8%), 합창 36명(8.5%), 연극 28명(6.6%)순이다.

<표 17>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하고 싶은 활동	빈도	퍼센트
그림	112	26.4
악기	167	39.4
합창	36	8.5
연극	28	6.6
국악	50	11.8
기타	31	7.3
합계	424	100.0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취미활동이라는 답변이 72명(30.3%)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해소가 목적이라는 응답도 54명(22.7%)를 차지하였다. 친목도모를 위해서는 32명(13.4%), 자아실현 26명(10.9%), 인간관계형성 20명(8.4%) 순이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9명(8.0%)으로 가장 낮았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에는 자녀와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 활동을 같이 한다는 답변을 볼 수 있었다.

<표 18>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문화활동 참여 이유	N	퍼센트
스트레스 해소	54	22.7
친목도모	32	13.4
자아실현	26	10.9
인간관계형성	20	8.4
취미활동	72	30.3
교양	19	8.0
기타	15	6.3
합계	238	100

문화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응답이 227명(28.6%)으로 가장 높았으며, 접근 편의성 190명(24.0%), 프로그램의 다양성 109명(13.7%), 시설요건 96명(12.1%), 동호회 활동 88명(11.1%)이며, 강사의 전문성이라는 답변은 67명(8.4%)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9> 문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

문화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 요소	N	퍼센트
접근의 편리성	190	24.0
프로그램의 다양성	109	13.7
시설요건	96	12.1
경제부담	227	28.6
동호회 활동	88	11.1
강사의 전문성	67	8.4
기타	16	2.0
합계	793	100.0

4. 관용성에 대한 차이검증

사례자들의 생활만족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0> 생활만족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같다.

분석결과 생활만족감은 5)주변인과의 친밀도 5.13점, 2)상대적 행복감 5.00점, 6)구성원으로써의 만족도 4.89점, 1)삶의 만족도 와 3)생활만족도는 평균이 4.86점으로 같았으며, 4)여가활동의 여유는 4.71점, 7)인생만족도 4.42점이다. 인생만족도의 경우 표준편차가 1.57로 나타나 다른 생활만족감에 비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생활만족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문항		N	평균	편차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438	4.86	1.15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예술활동)	438	5.00	1.15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436	4.86	1.14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438	4.71	1.34
5	미술(그림)활동 미술(그림)활동의 관용성정도	435	5.13	1.09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435	4.89	1.12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수용)	434	4.42	1.57

1) 집단별 관용정도의 차이검증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통해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남성보다 여성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에 대한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21>성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구가설은 1)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수준(t값 -2.53, p=0.012), 7)예술단체공간 임대에 대한 수용(t값 -2.19, p=0.029), 8)예술활동에 대한 진로설정(t값 -2.40, p=0.017)의 경우 t값은 ±1.96보다 크며, 유의수준이 p<0.05이므로 성별에 따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경제성, 단체공간에 대한 임대에 대한 관용수준이 다르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분석 결과 1)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정도수준은 여성 평균 4.70점으로 남성 평균 4.37점에 비해 높게 낮게 나타났으며, 7)예술단체 공간임대에서도 남성 4.98점에 비해 여성이 5.26점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에 있어서도 여성이 3.83점으로 남성 평균 3.4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경제능력과 문화예술단체 공간의 임대, 예술인으로써의 진로에 대한 인식차원에서 관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자들의 경우 여성응답자 수가 남성 응답자 수에 비해 많았다. 또한, ‘문화활동을 누구와 함께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답변의 대부분이 여성응답자였다. 이는 가족간의 유대와 아동과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의 노출빈도가 남성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우현(2009)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이 필수요건이며, 문화예술은 삶의 활력과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하는 원동력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여성들의 경우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과 적극적 생활로써 삶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남성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표 21> 성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구단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남성	194	4.37	1.41	-2.53	.012*	채택
		여성	250	4.70	1.32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예술활동)	남성	195	4.06	1.46	1.43	.152	기각
		여성	248	3.87	1.30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남성	191	4.85	1.51	-1.27	.204	기각
		여성	247	5.02	1.24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	남성	192	4.73	1.31	1.03	.299	기각
		여성	245	4.60	1.30			
5	미술(그림)활동 (미술(그림)활동의 관용성정도)	남성	194	5.24	1.22	-.89	.373	기각
		여성	247	5.34	1.06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남성	195	5.68	1.24	-1.35	.175	기각
		여성	248	5.83	1.00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남성	195	4.98	1.40	-2.19	.029*	채택
		여성	250	5.26	1.22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 설정 수용)	남성	195	3.49	1.48	-2.40	.017*	채택
		여성	249	3.83	1.45			
9	정치활동 (예술인의 정치활동 수용)	남성	195	3.58	1.39	-.88	.376	기각
		여성	250	3.71	1.47			

주) * $p < 0.05$, ** $p < 0.01$

(2) 연령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에 따른 연령별 관용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22> ‘연령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연령에 따른 유의수준은 9개의 내용 모두에 대하여 t값 ± 1.96 보다 크며 유의수준 $p < 0.01$ 로 ‘연령에 따라 관용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분석결과는 총점 7점을 기준으로 1) 예술인의 경제능력 인지의 정도는 10대가 평균 5.22점, 20대 4.90점, 30대 4.87점, 40대 4.70점, 50대 4.67점 순으로 대부분이 보통이상의 관용수준을 나타냈으나, 60세 이상이 3.41점으로 예술인에 대한 경제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 관용은 10대가 평균 4.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4.5점, 40대 4.10점, 30대 3.91점, 50대 3.78 순이다. 60세 이상은 3.2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용을 나타냈다. 3)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10대가 평균 5.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5.35점, 40대 5.25점, 50대 5.05점, 30대 4.95점, 60세 이상이 4.05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였다. 4)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40대가 4.97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4.91점, 10대, 4.85점, 50대 4.57점, 30대 4.48점, 60세 이상이 4.25점으로 가장 낮았다. 5)미술(그림)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10대 5.55점, 20대 5.48점, 30대 5.46점, 40대 5.42점, 50대 5.0점, 60세 이상 4.91점 순으로 조금 높은 수준의 관용수준을 나타냈다. 6)예술인들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식의 관용성은 10대 6.36점, 20대 6.18점, 40대 5.91점, 30대 5.69점, 50대 5.63점이며 60세 이상은 5.22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예술인들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의 관용성 정도는 높은 수준의 관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7)문화예술단체가 상주하는 공간의 임대료에 대한 관용성은 10대가 평균 5.69점, 20대 5.43점, 30대 5.42점, 40대 5.34점, 50대 5.13점, 60세 이상 4.11점 순으로 나타났다. 8)예술인직업에 대한 비전과 진로선택에 대한 관용성수준은 10대 4.39점, 30대 4.03점, 20대 3.95점, 40대 3.90점, 50대 3.69점이다. 60대 이상은 2.53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선택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예술인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10대가 평균 4.39점, 20대 3.96점, 40대 3.79점, 30대 3.75점, 50대 3.73점으로 대부분에서 보통수준이하의 관용성을 나타내었다. 60대는 2.83점으로 예술인의 정치활동에 있어 가장 부정적이었다. 관용성의 차이검증에서도 볼 수 있듯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관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은 모든 영역에서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에서 관용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령이 관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가 된다는 김용환(2006), 조진만 외(2011)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은 전반적인 인식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나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수준,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의 수용, 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을 보이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용성이 낮은 것은 오래전부터 인식되던 판따라, 빼에로, 광대, 떠돌이 등 가난한 삶으로 대변되는 예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 판단한다. 민들레(2010)에 따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사고, 적극적 자기표현, 능동적 태도, 자발적 태도 등의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관용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논의가 성립된다 하겠다.

서운석(2010)은 나이가 어릴수록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논의와 같이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각 세대별로 차별성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 수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한 가지 이상의 예술활동을 권장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은 삶에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문화예술을 취미생활로 확대해 나갈 때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과 관용성도 함께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표 22> 연령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구단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10대	39	5.22	.99	19.16	.000**	채택
		20대	53	4.90	1.29			
		30대	92	4.87	1.21			
		40대	106	4.67	1.36			
		50대	65	4.70	1.35			
		60세이상	87	3.41	1.13			
		합계	442	4.54	1.37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10대	39	4.81	1.33	10.76	.000**	채택
		20대	54	4.50	1.35			

	문화예술활동)	30대	92	3.91	1.33			
		40대	106	4.10	1.24			
		50대	63	3.78	1.28			
		60세이상	87	3.25	1.34			
		합계	441	3.96	1.38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10대	39	5.38	1.07	11.35	.000**	채택
		20대	52	5.35	1.12			
		30대	92	4.95	1.19			
		40대	105	5.25	1.11			
		50대	62	5.05	1.14			
		60세이상	86	4.05	1.79			
		합계	436	4.94	1.37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10대	39	4.85	1.40	3.89	.002**	채택
		20대	52	4.91	1.32			
		30대	90	4.48	1.27			
		40대	106	4.97	1.25			
		50대	62	4.57	1.21			
		60세이상	86	4.25	1.34			
		합계	435	4.65	1.31			
5	미술(그림)활동 미술(그림)활동 의 관용성정도	10대	38	5.55	1.09	3.85	.002**	채택
		20대	54	5.48	1.06			
		30대	92	5.46	1.14			
		40대	105	5.42	1.16			
		50대	63	5.08	1.11			
		60세이상	87	4.91	1.08			
		합계	439	5.30	1.13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10대	39	6.36	.76	9.29	.000**	채택
		20대	54	6.18	1.01			
		30대	92	5.69	1.08			
		40대	105	5.91	.98			
		50대	65	5.63	1.31			
		60세이상	86	5.22	1.07			
		합계	441	5.76	1.11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10대	39	5.69	.93	16.40	.000**	채택
		20대	54	5.43	1.12			
		30대	92	5.42	1.22			
		40대	106	5.34	1.23			
		50대	65	5.13	1.22			
		60세이상	87	4.11	1.30			
		합계	443	5.13	1.31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 수용)	10대	39	4.39	1.20	16.64	.000**	채택
		20대	54	3.95	1.40			
		30대	92	4.03	1.39			
		40대	106	3.90	1.41			
		50대	64	3.69	1.48			

		60세이상	87	2.53	1.19			
		합계	442	3.68	1.47			
9	정치활동 (예술인의 정치활동 수용)	10대	39	4.39	1.17	9.22	.000**	채택
		20대	54	3.96	1.36			
		30대	92	3.75	1.35			
		40대	106	3.79	1.40			
		50대	65	3.73	1.53			
		60세이상	87	2.83	1.34			
		합계	443	3.66	1.44			

주) *p<0.05, **p<0.01

(3) 학력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3>의 검증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3>‘학력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학력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6)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식의 관용성, 4)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 관용성을 제외한 1), 2), 3), 4), 5), 7), 8), 9)번의 항목에서 $t > \pm 1.96$ 이상,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6)번과 4)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력수준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은 요인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인식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공연 등의 행사를 접하게 되는 기회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 인식되므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 문화예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관용의 정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학력으로 갈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 수준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 수준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진만 외(2011)는 교육수준이 관용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육수준이 관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용환(2006)의 연구와 논의를 함께할 수 있다.

이동호(2009)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미여가생활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한 논의의 이유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Ginsburgh · Throsby(2006;363-364)의 논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예술은 그림 등의 유물 및 공연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높은 문화’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는 무형의 상품으로 문화적 가치와 신념이 공공의 이익을 가진 속성을 지닌 지식처럼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대되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광범위하게 접하게 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그 관용의 수준 또한 더불어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3> 학력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구단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중졸이하	45	3.56	1.17	9.61	.000**	채택
		고졸	85	4.28	1.46			
		대졸	209	4.60	1.33			
		대학원이상	22	5.12	1.42			
		합계	361	4.43	1.40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예술활동)	중졸이하	44	2.90	1.39	8.12	.000**	채택
		고졸	84	3.84	1.37			
		대졸	210	3.95	1.26			
		대학원이상	22	4.01	1.28			
		합계	360	3.80	1.34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중졸이하	44	3.23	1.58	29.40	.000**	채택
		고졸	84	4.99	1.39			
		대졸	208	5.10	1.17			
		대학원이상	21	5.64	.97			
		합계	357	4.87	1.41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중졸이하	42	4.13	1.46	2.33	.074	기각
		고졸	85	4.65	1.27			
		대졸	206	4.64	1.29			
		대학원이상	22	4.90	1.06			
		합계	355	4.58	1.29			

		합계	355	4.60	1.30			
5	미술(그림)활동 의 관용성정도	중졸이하	45	4.76	1.09	5.56	.001**	채택
		고졸	82	5.22	1.16			
		대졸	210	5.36	1.14			
		대학원이상	22	5.86	.81			
		합계	359	5.28	1.14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중졸이하	45	5.50	1.14	1.44	.230	기각
		고졸	85	5.54	1.12			
		대졸	209	5.68	1.16			
		대학원이상	22	6.04	.81			
		합계	361	5.65	1.13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중졸이하	45	3.82	1.49	16.18	.000**	채택
		고졸	85	5.12	1.21			
		대졸	210	5.20	1.26			
		대학원이상	22	5.55	1.12			
		합계	362	5.03	1.35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 수용)	중졸이하	45	2.31	1.12	17.31	.000**	채택
		고졸	84	3.46	1.55			
		대졸	210	3.89	1.43			
		대학원이상	22	4.28	1.22			
		합계	361	3.62	1.51			
9	정치활동 (예술인의 정치활동 수용)	중졸이하	45	2.34	1.24	14.64	.000**	채택
		고졸	85	3.56	1.34			
		대졸	210	3.75	1.45			
		대학원이상	22	4.29	1.44			
		합계	362	3.57	1.48			

주) *p<0.05, **p<0.01

(4) 문화활동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예술과 관련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4>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4> ‘문화활동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문화활동의 유·무에 따른 관용성은 t값 ±1.96 이상,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인에서 평균이상의 관용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자의 경우 2)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이 3.76점, 8)예술인 진로선택에 대한 수용성 3.34점, 9)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용성 3.50점으로

부정적이다.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앞에 학력이 높을수록 관용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같이 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작용은 교육효과로 작용하여 더 다양한 활동을,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킨다. 문화예술로 시작된 관심은 또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원활하게 하여 삶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의 작용은 선순환 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의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관용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동의 접근성을 확대해나간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24> 문화활동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구단위		활동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유	147	4.95	1.34	4.42	.000**	채택
		무	292	4.35	1.34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 예술활동)	유	146	4.39	1.44	4.57	.000**	채택
		무	292	3.76	1.29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유	143	5.33	1.20	4.23	.000**	채택
		무	290	4.78	1.41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유	142	5.04	1.27	4.23	.000**	채택
		무	290	4.49	1.27			
5	미술(그림)활동	유	146	5.67	.97	5.16	.000**	채택

	(미술(그림)활동의 관용성정도)	무	290	5.13	1.14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유	147	6.06	.98	4.02	.000**	채택
		무	291	5.64	1.13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유	147	5.47	1.28	3.68	.000**	채택
		무	293	4.98	1.30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 수용)	유	147	4.39	1.47	7.45	.000**	채택
		무	292	3.34	1.341			
9	정치활동 (예술인의 정치 활동 수용)	유	147	4.00	1.55	3.26	.001*	채택
		무	293	3.50	1.358			

*p<0.05, **p<0.01

(5) 예술활동 분야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문화예술활동의 분야에 따라 관용의 수준은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5> 검증을 위한 ANOVA분석 결과는 <표 25> 예술활동 분야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예술활동 분야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는 $t_{값} \pm 1.96$,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1)예술인들의 경제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국악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자가 5.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극활동인 5.14점, 기타활동인 5.03점, 합창활동인 4.96점, 악기활동인 4.95점순이며, 미술(그림)활동이 4.44점이다.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관용수준이 평균 4.35로 가장 낮았다. 2)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국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4.65점으로 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다. 합창활동인 4.52점, 악기활동인 4.41점, 미술(그림)활동인 4.33점, 연극활동인 4.30점,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76점으로 평균이하로 관용성이 가장 낮았다. 3)야외문화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연극활동인 5.65점, 미술(그림)활동인 5.39점, 합창활동인 5.33점, 국악활동인 5.25점, 악기활동인 5.18점으로 야외문화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문화활동이 없는 경우는 4.91 순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관용수준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4)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의 관용성은 미술(그림)활동인 5.34점, 합창활동인 5.19점, 국악활동인 4.98점, 악기활동인 4.96점, 연극활동인 4.93점 순이며,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4.49점으로 기타활동인 4.3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미술(그림) 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기타문화활동인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였으며 미술(그림)활동인 5.87점, 악기활동인 5.69점, 연극활동인 5.67점, 합창활동인 5.58점, 국악활동인 5.16점,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13점 순서로 관용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6)예술인에 대한 지식수준의 인지는 연극활동인의 경우가 6.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활동인 6.20점, 악기활동인 6.19점, 미술(그림)활동인 5.93점, 국악활동인 5.90점, 합창활동인 5.80점, 문화활동이 없는 경우 5.64점 순으로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예술단체 공간 임대 에 대한 관용수준은 기타활동인 6.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악기활동인 5.58점, 국악활동인 5.56점, 합창활동인 5.54점, 연극활동인 5.51점,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98점 순이다. 8)예술인 진로 선택에 대한 관용성은 기타활동인 5.27점, 합창활동인 4.82점, 연극활동인 4.41점, 미술(그림)활동인 4.38점, 악기활동인 4.09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관용성을 보였다, 그러나 국악활동인은 3.70점,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30점으로 약간 부정적이다. 9)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국악활동인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극활동인 4.31점, 합창활동인 4.08점으로 보통수준의 관용을 보이고 있으나, 악기활동인 3.85점, 미술(그림)활동인 3.80점, 기타활동인 3.66점, 문화활동이 없는 경우 3.50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용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의 이유는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관용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은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나타낸다. 하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확장은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분야로 관심을 확장시키게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5> 예술활동 분야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활동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합창	31	4.96	1.35	4.48	.000**	채택
		악기	48	4.95	1.27			
		그림	25	4.44	1.56			
		연극	29	5.14	1.26			
		국악	8	5.77	.88			
		기타	6	5.03	1.61			
		없음	292	4.35	1.34			
		합계	439	4.55	1.37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예술활동)	합창	30	4.52	1.18	3.71	.001**	채택
		악기	48	4.41	1.48			
		그림	25	4.33	1.35			
		연극	29	4.30	1.67			
		국악	8	4.65	1.37			
		기타	6	3.91	1.91			
		없음	292	3.76	1.29			
		합계	438	3.97	1.37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합창	31	5.33	.92	3.14	.005**	채택
		악기	48	5.18	1.36			
		그림	24	5.39	1.17			
		연극	28	5.65	1.00			
		국악	6	5.25	1.28			
		기타	6	4.91	1.99			
		없음	290	4.78	1.41			
		합계	433	4.96	1.36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합창	30	5.19	.90	3.66	.001**	채택
		악기	48	4.96	1.35			
		그림	24	5.34	1.10			
		연극	27	4.93	1.55			
		국악	7	4.98	1.34			
		기타	6	4.31	1.49			
		없음	290	4.49	1.27			
		합계	432	4.67	1.30			
5	미술활동 (미술(그림)활 동의 관용성)	합창	30	5.58	.94	4.52	.000**	채택
		악기	48	5.67	1.05			
		그림	25	5.87	.95			
		연극	29	5.69	.91			
		국악	8	5.16	1.08			
		기타	6	6.00	.56			
		없음	290	5.13	1.14			

		합계	436	5.31	1.11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합창	31	5.80	1.28	3.14	.005**	채택
		악기	48	6.19	.84			
		그림	25	5.93	.79			
		연극	29	6.26	.97			
		국악	8	5.90	.99			
		기타	6	6.20	1.09			
		없음	291	5.64	1.13			
		합계	438	5.78	1.10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합창	31	5.54	1.21	3.47	.002**	채택
		악기	48	5.58	1.31			
		그림	25	4.90	1.48			
		연극	29	5.51	1.18			
		국악	8	5.56	.88			
		기타	6	6.16	1.16			
		없음	293	4.98	1.30			
		합계	440	5.14	1.31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 수용	합창	31	4.82	1.36	10.93	.000**	채택
		악기	48	4.09	1.50			
		그림	25	4.38	1.47			
		연극	29	4.41	1.23			
		국악	8	3.70	1.94			
		기타	6	5.27	1.81			
		없음	292	3.34	1.34			
		합계	439	3.69	1.47			
9	(정치활동) 예술인의 정치활동 수용	합창	31	4.08	1.48	2.41	.023	기각
		악기	48	3.85	1.62			
		그림	25	3.80	1.56			
		연극	29	4.31	1.63			
		국악	8	4.31	1.71			
		기타	6	3.66	.51			
		없음	293	3.50	1.35			
		합계	440	3.67	1.43			

주) *p<0.05, **p<0.01

(6)지역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귀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6>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6>지역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분석결과 지역에 따른 관용성의 수준은 1)예술인의 경제능력 인지가 t값 ±1.96 이상, p<0.05 수준에서, 2)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활동, 8)예술인으로써의 진로

에 대하여는 t 값 ± 1.96 이상, $p < 0.01$ 수준에서 지역에 따라 관용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1) 예술인의 경제능력 인지에 대한 수준은 제주시가 4.63점으로 서귀포시 4.26점에 비해 높았으며, 2) 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서귀포시가 4.44점으로 제주시 3.81점에 비해 높았다. 8) 예술인 진로선택에 대한 수용의 관용성은 제주시가 3.80점으로 서귀포시 3.26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관용수준으로 예술인 진로설정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 야외 문화예술활동, 4)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 5) 미술(그림)활동, 6) 예술인에 대한 지식수준의 인식, 7) 예술단체공간 임대, 9) 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용의 수준은 t 값 ± 1.96 이하로 높아 지역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기각된다.

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제주시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문화예술활동에 관해서는 서귀포시가 관용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는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관광지역으로써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짐으로써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심리의 작용에 따른 기대심리의 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경우 관광에 대한 기대감보다 문화예술 공연의 횟수가 서귀포시 지역에 비해 많고 다양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호감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문화예술향유의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문화예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고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문화예술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인식의 차이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지역에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관용의 정도를 확장하고, 제주도 지역에는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줌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6> 지역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구단위	거주지역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제주시	343	4.63	1.40	2.57	.011*	채택
	서귀포시	98	4.26	1.23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 예술활동)	제주시	342	3.81	1.37	-4.02	.000**	채택
	서귀포시	98	4.44	1.29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제주시	338	4.92	1.36	-.72	.469	기각
	서귀포시	97	5.04	1.39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제주시	337	4.61	1.32	-1.32	.186	기각
	서귀포시	97	4.81	1.26			
5 미술(그림)활동 (미술(그림)활동의 관용성정도)	제주시	340	5.34	1.09	1.25	.210	기각
	서귀포시	98	5.18	1.25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	제주시	343	5.82	1.11	1.85	.064	기각
	서귀포시	97	5.58	1.10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제주시	344	5.14	1.39	.31	.752	기각
	서귀포시	98	5.10	.99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 설정 수용)	제주시	343	3.80	1.48	3.23	.001**	채택
	서귀포시	98	3.26	1.39			
9 정치활동 (예술인의 정치활동 수용)	제주시	344	3.69	1.47	.87	.383	채택
	서귀포시	98	3.54	1.32			

주) *p<0.05, **p<0.01

(7)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이 있는 가정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7>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분석을 통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27> '친인척 중 예술인의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과 같다.

분석결과 2)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문항은 t값 ±1.96이나, 유

의수준 $p > 0.05$ 수준으로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3)야외활동과 9)정치활동에 대한 문항은 t 값 ± 1.96 이상,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1), 4), 5), 6), 7), 8)은 ± 1.96 이상,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친인척 중 예술인이 있는 가정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친인척 중 예술인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인식이 확장되길 바라는 인식의 작용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직까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평균수준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확장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검증

연구단위		예술인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연구가설 채택여부
1	경제능력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	유	59	5.09	1.47	3.25	.001**	채택
		무	379	4.4	1.34			
2	주변활동 (생활밀접지역 문화예술 활동)	유	59	4.22	1.71	1.26	.209	기각
		무	378	3.92	1.31			
3	야외활동 (야외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유	59	5.37	1.39	2.52	.012*	채택
		무	373	4.89	1.35			
4	공연활동 (생활밀접지역 공연활동)	유	57	5.09	1.46	2.62	.009**	채택
		무	374	4.60	1.27			
5	미술(그림)활동 (미술(그림)활동의 관용성정도)	유	59	5.66	1.09	2.58	.010**	채택
		무	376	5.25	1.13			
6	지식수준 인식 (예술인의 지식 수준에 대한 인지)	유	59	6.34	.83	5.37	.000**	채택
		무	378	5.68	1.13			
7	단체공간 임대 (예술단체공간 임대)	유	59	5.64	1.30	3.18	.002**	채택
		무	380	5.0	1.29			
8	(예술인진로) 예술인으로의 진로설정	유	59	4.39	1.69	3.48	.001**	채택

	수용	무	379	3.58	1.42			
9	(정치활동)	유	59	4.05	1.66	2.26	.024*	채택
	예술인의 정치활동 수용	무	380	3.59	1.40			

주) *p<0.05, **p<0.01

(8) 문화활동에 따른 생활만족감에 대한 차이 검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은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8>을 검증하기 t-test를 통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28> ‘문화활동과 생활만족감에 따른 차이검증’과 같다.

분석결과 문화활동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감은 t값이 3.268로 ±1.96보다 크고, 유의수준은 p<0.05이므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느끼는 생활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평균은 5.07점으로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4.72점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이 필수요건이며, 문화예술은 삶의 활력과 적극적 생활을 하게하는 원동력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현우현(2009)의 연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사고, 적극적 자기표현, 능동적 태도, 자발적 태도 등의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한 민들레(2010)의 연구결과와도 의견을 같이한다. 역으로 제시한다면 생활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필수라는 논리와도 함께할 수 있다.

빈도분석을 통해서 보았듯이 문화활동 참여의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취미활동이라는 답변이 높았으나, 스트레스 해소, 친목도모, 자아실현 등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문화예술 취미활동이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하여 생활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여 취미생활로써 즐기며 자아실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나간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8> 문화활동과 생활만족감에 따른 차이검증

	문화 활동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연구가설 채택여부
생활 만족감	유	141	5.0709	1.06790	3.268	0.01*	채택
	무	285	4.7283	.90950			

주) *p<0.05, **p<0.01

5. 분석결과의 함의

제주지역주민에 대하여 관용성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2012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80부이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45부이다. 그 중 제주시 344부, 서귀포 9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사례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사례자들이 응답한 문화활동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은 악기연주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시 동반참여자는 가족, 친구, 동호인과 함께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문화활동의 횟수는 대부분이 주1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활동 참여 이유는 취미활동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사례자들이 문화활동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악기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활동을 우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활동을 함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으로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접근의 편리성,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2) 관용성에 대한 분석결과

관용성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문화활동 유·무,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의 유·무에 따라 항목간의 차이가 있으나 관용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 예술인의 경제능력에 대한 인식의 관용성

예술인의 경제능력에 대한 인식의 관용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문화예술활동 유·무, 거주지역,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보다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고학력일수록,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제주시 거주자가, 친인척가운데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서 예술인에 대한 경제능력의 인지수준에 대한 관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용성

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연령, 학력, 문화활동의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관용성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서귀포 거주자인 경우에서 생활밀접지역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야외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용성

야외에서의 문화활동 수용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연령, 학력, 문화활동 유·무,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서 야외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에 대한 관용성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 수용에 대한 관용 정도는 연령, 학력, 문화활동 유·무,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20대, 1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자에게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이 있는 경우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 활동에 대한 관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성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미술(그림)활동에 대한 관용성

미술(그림)활동에 대한 관용성은 연령, 학력, 문화활동 유·무,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고학력일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서 미술(그림) 활동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았으며, 지역별, 성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6) 예술인의 지식수준 인지에 따른 관용성

예술인의 지식수준 인지에 따른 관용성은 연령, 문화활동 유·무, 거주지역,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서귀포보다는 제주도 거주자가, 친인척 가운데 문화예술인이 있는 경우 예술인의 지식수준 인지에 따른 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학력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7) 단체공간 임대에 따른 관용성

예술단체가 공간을 임대함에 따른 수용에 대한 관용성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문화활동 유·무,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여성인경우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친인척 가운데 예술인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단체가 임대를 할 때 수용에 대한 관용성 수준이 높았으나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8) 예술인 진로에 대한 관용성

예술인으로 진로를 설정하거나 변경함에 따른 수용에 대한 관용성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문화활동 유·무, 거주지역별,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

성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주시 거주자가, 친인척 중 예술인이 있는 경우 예술인에 대한 진로선택에 있어서 관용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용성

예술인이 정치활동에 따른 관용성에 대한 결과는 연령별, 학력별, 문화활동 유·무,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친인척 중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서 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용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로써,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이다. 또한 ‘관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은 장소와 기술과 인재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요소이다. 관용을 통해 개방성이 형성된 장소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여 문화예술도시 구성에 관광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을 통해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관용”을 지역의 가치로 삼고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의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설문함으로써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의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근거로 삼고자하였다.

분석을 통해 성, 연령, 학력수준, 문화활동여부, 거주지역,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관용성의 수준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연령별, 학력수준, 문화활동여부, 친인척 중 예술인 유·무에 따라 관용성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관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높여나간다면 생활만족도 상승하며, 그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문화예술도시는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

는 곳이다. 정책을 통해 창의적 인재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하여도 지역에서 그들에 대한 수용(관용)의 자세가 용인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창의적 능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다.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반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관용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증가된 문화활동을 통한 관용성의 증가는 외부지역의 인재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써 인정받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성을 인정받는 도시로써 인식 될 때 제주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

살기 좋음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경쟁력보다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척도로 한 개념이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충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창조와 혁신의 장이다. 지금 사회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증대, 범죄발생의 증가등 사회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관용은 다원주의 사회를 위한 기초 개념이며 민주주의와 평화 공존을 위한 전략적 가치이다(김용환·조영재, 2000:51).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충돌이나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의 덕목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관용”을 매개로 하는 문화예술도시의 조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관용”할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의 관용수준을 확인하고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적 취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협조해 나가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의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문화예술이 자유롭게 표현될 때 다양성은 존중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확장된다면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은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황과 이

를 통한 일정 수준의 분석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관용성이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연결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각 대상자들과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대상 변수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해석해 나간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이 인식을 확인하여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관용에 대한 인식 수준과 문화예술정책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성도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확인한 것과 같이 관(官)에 대한 문화예술의 관용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관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의 필요성이 제시되므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확인해 볼 필요성도 제시된다.

관용성 확장을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임의영(2010)은 사회적·인간적 유대와 통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문제는 한국근대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처의 치유 없이 지역주민의 관용성 확장은 쉽지 않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불관용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예술도시를 위한 발전 및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편협적으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영역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불관용 사례를 검토하여 연구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관용성 확대의 노력과 정책반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적영역에서의 관용성 확장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공적영역에 대한 관용수준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사회적, 인간적 유대와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인식된다면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정책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 지역주민의 관용의 정도를 확인하고 관용성 확장을 위한 제안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해 도시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제주는 새로운 발상의 원천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적 활동에 매력을 부가하여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김인철(2008)은 창의계층이 지역발전의 동력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력이 되는 인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인재를 산출하고 유인하는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재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떠한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용의 정도를 높여나가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관용성의 확장을 위해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생활과 문화활동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사사키 마사유키(2008)은 문화예술도시의 요건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사사키 마사유키가 제안한 요인들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창의적 활동의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문화예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중심에는 ‘창조성’이 있다. 창조는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을 필요로 한다.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현을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문화에

술과 예술인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창의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지역단위마다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 가지 문화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전시와 공연의 욕구를 마을의 축제를 통해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고, 지역 곳곳의 거리 공연문화로 이동하게 된다면, 삶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김혜숙(1993;115)에 의하면 ‘가족’이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 태도, 신념을 지니고 있어 가족구성원간의 차이는 가족내 갈등과 심리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권재일(2010)은 가족활동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원만한 가족관계가 건강상태에 좋은 영향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유도한다면, 공통의 취미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함으로써 세대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세대간 소통과 차이에 따른 관용성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활동의 보편화와 접근의 편의성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고려되는 사항으로 경제적 부담과 접근의 편의성,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이 예술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질의 소비재를 합리적 가격에 구입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공연을 저렴한 비용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과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혹은 문화예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하고 싶은 문화활동을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자유로운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참여하고 싶은 문화활동에는 악기와 미술(그림)활동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악기활동과 미술활동을 지역주민에게 권장하고 싶다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배우고 싶은 악기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역에 구비해 놓고 배우게 한다거나, 미술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경제적 부담도 축소될 것이며 접근의 편리성 또한 갖출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문화예술센터, 혹은 주민자치센터를 24시간 개방하여 언제라도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에 활동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시간에 구속됨 없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개방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환원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일부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3)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인프라의 확대

대학, 연구소, 극장, 도서관 등이 도시 내에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한 문화예술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예술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타워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며 대학, 연구소, 극장, 도서관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를 동원하여 지역주민이 문화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높여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활동공간이 없어 활동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예술인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역의 비어있는 공간을 수용하거나 임대하여 무료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술학교를 지역에 유치하여 미래의 인적자원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인재풀이 형성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인재들의 증가는 다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이 작용하게 할 것이다.

4) 역사유산과 도시환경의 보전

다름의 차이는 정체성(identity)를 전제로 한다. ‘관용’의 확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정체성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사키 마사유키 외(2010)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유산과 도시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은 지역적 문화창조 기능을 흡수하고 집약을 통한 ‘문화의 석화(石花)’라고 하였다.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것을 배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통문화만 고집하는 것 또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고 또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여 지역의 독창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적인 생태를 지역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발시키지 않고도 자연의 미가 살아 넘치는 도시로써 발전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제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산업과 환경정책을 연계시켜 지역의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도시의 특징은 보편성이 아닌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수용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유산의 보존과 도시환경을 개발로부터 지키고 문화적 유산과 예술문화, 그리고 환경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경제인이 서로 관용하고 협력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해 공공행정의 관점에서 정책마련

소통과 협력은 서로 관용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관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용의 정도를 검토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재정적 경제기반 마련과 산업 및 환경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공공행정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정책이 공공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정책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의 폭을 넓히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양한 인재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활동,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이 존중받음으로써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용”적인 분위기를 지닌 도시이다. 지역은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는 관용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하기 위한 행정의 열린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거리 곳곳에 음악이 흘러넘치고 전시와 공연이 활성화됨으로써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간다면, 문화예술도시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또한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문화예술행정이 공공행정 관점에서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관용 사례를 확인하여 불관용하지 않으려는 관(官)의 노력이 필요하다. 4.3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던 영화 「레드헌트」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순태(1997)는 「레드헌트」가 이적물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상영불가 판정을 받아 오랫동안 상연되지 못했지만, 영화를 상영하고자 했던 1997년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석씨의 구속사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수많은 관객이 관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적성을 운운한 바가 없다는 점,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불법한 표현이란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1992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억지주장임을 제시하고 있다. 판단은 정부의 몫이 아닌, 만든 작품을 보고 판단하는 관람자의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은 정부가 판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양쪽의 공정한 의견을 확인하고 공론의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변영수(1998) 대표의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일지 않으려 애쓰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노래를 듣고, 책과 만화를 읽고, 영화를 보는 그 모든 것에 자유로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라는 한마디가 현실 문화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유해하다거나, 음란하다거나, 국가보안법에 접촉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관(官)의 관용은 가깝고도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정도를 정말 잘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례는 지역정부의 “관용”을 오히려 더 저해할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석찬, (1992), 민주주의의 정신적 조건으로서의 관용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31: 175-192.
- 고창훈·김진호, (1994), 지방정부의 민주화: 제주도 사례에서 본 관용성의 맥락과 전략, 「한국행정학보」, 28(4): 1301-1323.
- 곽한병, (2008), 공무원의 여가활동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 권재일, (2010),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현정, (2011), 메테를랭크의 '틈입자 L'Intruse' 또는 제3의 존재, 「한국프랑스학논집」, 73: 95-11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http://www.law.go.kr>.
- 김경숙·조화성, (210),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유형과 특징, 「민족연구」, 41(0).
- 김남국, (2005), 심의 다문화주의: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87-107.
- 김석태·서준교, (2003.12),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지방문화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338-359.
- 김수중, (2009), 「다음의 도전적인 실험」, 시대의 창.
- 김순태, (1997), 레드헌트는 과연 이적표현물인가, 「민주법학」, 13: 317-321.
- 김용환, (1994), '관용'에 대한 철학적 분석-다원주의 사회를 위한 기초 개념, 「현상과인식」, 통권제23호, 겨울: 91-116.
- (2006), 관용의 윤리: 철학적 기초와 적용영역들, 「철학」 87: 65-90.
- 김용환·조영제, (2000), 관용을 위한 가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0: 51-80.

- 김이선, (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1).
- 김인철, (2008), 창의성계층이 글로벌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9(4): 173-196.
- 김인현, (2011), 창조도시 요코하마시와 가나자와시의 비교-창조도시 광주광역시에의 제언, 「일본문화연구」, 39: 125-141.
- 김희순·정희선,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1): 93-106.
- 김혜숙, (1993),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한국가족의 신념과 심리적 적응, 「청소년상담연구」, 1(1).
- 노형진, (2006), 「SPSS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 Daum, (2012), 브리태니커백과.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2.3.8
- 두산백과, (2012), <http://www.doopedia.co.kr>
- 디디에 오탕제르, (2001), 이화여대통역번역대학원 공동번역연구회 옮김, 「1930년대」 창해.
- Richard Florida, (2008), 이종호·서민철·이원호 옮김,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 민들레, (2009), 무용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노인의 정서적 인식 변화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신의, (2004), 새로운 문화 개념을 통한 통합적 문화정책을 바란다, 「월간문화예술」, 12.
- (2008), 연대와 교류를 모색하는 아시아 예술 행정, 「계간 문화예술」, 7.
- (2004), 프랑스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세계 문화인들 움직이게 만드는 프랑스 문화정책, 「월간 문화예술」, 1.
- (2008), 창조도시, 창조계급,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 3-18.
- 변영수, (1998), 올해는 레드헌트를 볼 수 있을까, 「말」, 2: 1.

- 변재선, (2008), 한옥마을 예술공동체,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로 거듭나라, 「열린전북」, 104: 65-67.
- 사사키 마사유키·종합연구개발기구, (2010.3), 이석현 옮김,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미세움.
- (2008), 창조적 문화에 도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토」, 322: 57-61.
- Samuel Phillips Huntington, (2011),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 서순복, (2009), 도시의 창의성과 창조도시 육성정책의 성공 전략요인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대회, 지역발전 전략과 성찰.
- 서운석,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현황: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1).
- 소병철, (2010), 관용의 조건으로서의 인권적 정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 옹호론, 「민주주의와 인권」, 10(3): 137-161.
- 송지준, (2011),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손은하·신나경, (2010), 공공미술의 전개와 로컬공간의 재생, 「기초조형학연구」, 11(4): 135-143.
- 신광철, (2004),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전망, 인문콘텐츠학회와 제주도 주최 제주문화와 문화콘텐츠산업세미나 자료.
- 신조황, (2010), 노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웰니스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태선, (2010), 중국과 한국의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비교 연구-베이징 타산즈 지역과 서울 문래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3(3): 115-138.
- 양승태, (2007), 톨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 13(1): 53-77.
- OECE, (2002), 오현석·김정섭 옮김,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 왈쩌(Michael Walzer), (2004), 송재후 옮김, 「관용에 대하여」, 미토.
- 위키백과, (2012), <http://ko.wikipedia.org>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 이동호, (2009), 한국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륜희, (2011), 문화정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58: 397-423.
- 이수안, (2008), 이주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 「사회와 이론」, 1(12): 73-107.
- (2009), 지속 가능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로서 상호관용과 상호보살핌, 「문화와 사회」, 7: 87-114.
- 이용재, (2010), 관용에 대한 두 가지 해석-구성적 관용과 통합적 관용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8(2): 1-24.
- 이중수, 윤영진 외, (201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29(1): 109-131.
- 이태주·권숙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호주와 일본의 사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06-07.
- 이학수, (2008), 파리 톨레랑스, 「역사와경계」, 68: 329-370.
- 임의영, (2010), 공공성의 개념구조와 유형, 「한국행정학보」, 44(2).
- 임점주, (2010), 노인여가행태와 자기통제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200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정철현·김종업, (2011),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거리 활용방안: 부산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79-391.
- 조상식, (1999), 톨레랑스 혹은 관용 그 미덕과 해악, 「인물과사상」, 11: 53-63.
- 조상희, (2011), 노인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arles Landry, (2008), 임상오 옮김, 「창조도시」, 도서출판 해남.

- 최병두, (2011),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17-39.
- 최윤진, (2008), 청소년 호칭의 역사에 관한 연구-청소년 호칭 유형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7).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2012), <http://litmus.cc>
- 통계청, (2012), <http://www.kostat.go.kr/>
- 한세익, (2011), 사회공공성 모델에 근거한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616-630.
- 한승준, (2006), 「조사방법의 이해와 SPSS활용」, 대영문화사
- (2008), 「조사방법의 이해와 SPSS활용」, 대영문화사
- 현우현, (2009), 포항지역 거주노인의 공연예술문화생활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 J. K Cowan, (2006), Culture and Rights after Culture and Rights, 「American Anthropologist」, 108(1): 9-24.
- Krejcic.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607-610.
- Parekh, Bhikhu. (2000), Defining British National Identity, 「Political Quarterly」, 71(1).
- Victor A. Ginsburgh · David Throsby (2006),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Elsevier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level of tolerance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 city in Jeju

Mi-Kyung 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nag)

The cultural and art city is the cultural and artistic creative civic-space with Cultural infrastructure, has led to regional development.

The tolerance as acknowledge each other's differences and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anyone have to respect the cultural diversity.

The cultural and artistic city means the creative civic spaces based on tolerance.

This study intend to give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city in Jeju by applying the tolerance in the field of cultural and art.

The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olerance" of the concept are deduc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econd, the tolerance on the order of elements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ultural arts programs should be expanded continuously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tolerance,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continued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and The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can make a positive change in public attitudes regarding the culture and Arts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ntinue developing the culture and art city in Jeju must prepare a wide variety of cultural arts programs.

By expanding the public accessibility to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creased level of tolerance will make the city that people in other regions want to live.

Thus, we will realize that Jeju is the place where all diversity is respected, In Jeju to be reject conformity and respect the cultural diversity, we can develop the cultural and art city in Jeju.

key word : culture, cultural and art city, tolerance, diversity, regional development

연번			
----	--	--	--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지(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학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 월

지도교수 : 황경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자 : 현미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수료)
 문의 : 016-696-6694

□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측면의 질문유형(1)입니다.

번호	문항	수용 불가	불수용	약간 불수용	보통	약간 수용	수용	적극 수용
1	자녀가 다니던 직업을 그만두고 예술인의 직업을 가지려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예술학교에 진학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국악예술학교에 진학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예술인의 정치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만약 예술가가 지역에서 정치 또는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예술인은 '개방적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예술인에 대한 활동 측면의 질문입니다.

*미술인(그림)에 대한 질문입니다.							
7	미술인들이 9시 - 18시에 직장주변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미술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6시 이후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미술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미술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그림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미술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6시 이후에 그림 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미술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그림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악인(악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연주자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악기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연주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악기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연주자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악기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연주자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악기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연주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악기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연주자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악기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악인(합창)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음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합창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음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합창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음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합창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음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합창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음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합창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음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합창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연극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연극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연극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연극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연극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연극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연극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연극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연극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연극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연극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연극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연극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국악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국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국악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국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국악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국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국악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국악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오후6시 이후에 국악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국악인들이 9시-18시에 직장주변에서 국악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국악인들이 올레길과 같은 야외에서 국악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측면의 질문(2)입니다.**

번호	문항	수용 불가	불수용	약간 불수용	보통	약간 수용	수용	적극 수용
*미술(그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미술인은 "환쟁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미술인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미술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미술인은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미술을 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악(악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	'악기연주자는 "판따라"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악기연주자는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악기연주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악기연주자는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악기연주자는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악(합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1	‘노래하는 사람은 “풍각쟁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노래하는 사람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합창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노래를 하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노래를 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연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1	‘연극하는 사람은 “광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연극인하는 사람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연극단체가 건물에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연극인은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연극을 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국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1	‘국악인은 “광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국악인은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가 낮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3	‘국악단체가 입주하면 전세가격이 하락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국악인은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5	‘국악하면 밥 굶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예술(그림, 악기, 합창, 연극, 국악)” 과 관련된 문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예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참여하고 있는 문화 활동이 없으면 2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 ① 합창 ② 악기 ③ 그림 ④ 연극 ⑤ 국악 ⑥ 기타(활동) ⑦ 없음

1-1. 1번의 대답에서 활동은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③ 동호인 ④ 혼자 ⑤ 기타()

1-2. 1번의 대답에서 활동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참여 하십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기타 (회)

1-3. 1번에 대답하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스트레스 해소 ② 친목 도모 ③ 자아실현 ④ 인간관계 형성
⑤ 취미활동 ⑥ 교양을 쌓기 위해 ⑦ 기타 ()

2. 귀하께서 평소 배우고 싶은 예술 활동이 있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그림 ② 악기 ③ 합창 ④ 연극 ⑤ 국악 ⑥ 기타()

3. 예술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접근의 편리함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③ 시설 요건 ④ 경제적 부담
⑤ 동호회 활동 ⑥ 전문성 ⑦ 기타()

□ 귀하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번호	문 항	수용 불가	불수용	약간 불수용	보통	약간 수용	수용	적극 수용
1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생활수준(의식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삶을 즐길만한 여가활동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이상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제주시(읍/면/동) ② 서귀포시(읍/면/동)
4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월 소득은?	① 없음 - 100만원대 ② 200만원대 ③ 300만원대 ④ 400만원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의사, 교수, 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② 공무원(일반직, 선출직, 교사 등) ③ 제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사무, 판매업) ④ 농·수·축산업 ⑤ 전업주부 ⑥ 학생 ⑦무직 ⑧ 기타()
7	식구 또는 친인척 중에 예술관련 직업?	① 있다(분야:) ② 없다